

第143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8月30日(火)
場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內務部長官出席答辯의件
2. 調查對象關聯者出國禁止要請回信에 관한件
3. 日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의件(現場調查關聯事項對策)

審査된案件

1. 內務部長官出席答辯의件..... 1面
2. 調查對象關聯者出國禁止要請回信에 관한件..... 47面
3. 日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의件(現場調查關聯事項對策)..... 47面

(15時18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오늘 會議時間이 豫定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事情을 말씀드리자면 各黨의 委員 交替節次 때문에 지금 이 時間까지 늦어졌다는 報告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次 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當 特委에서는 여러 가지 懸案問題들을 論議하기 위하여 지난 8月26日 4黨 幹事會議을 열고 지난번 第6次 全體會議에서 委員長에게 委任해 주신 內務部長官의 當 委員會 出席要求日字를 定하는 문제와 日海財團에 대한 現場調查와 관련된 그 뒷處理問題 그리고 靑南臺에 대한 現場調查日程을 再調整하는 문제등 오늘 開議되는 當 特委의 全體會議의 議事日程에 관하여 協의를 하였습니다.

그 結果 이미 여러 委員들께 通知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議事日程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議事日程에는 記載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當 特委 第6次 會議에서 靑南臺에 대한 現場調查를 8月29日 實施하기로 決定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그 會談이 있었던 大統領과 統一民主黨 總裁와의 會談이 8月29日로 決定되어 不得已 當 特委의 靑南臺 現場調查日程은 9月1日로 변경해서 實施하기로 幹事會議에서 合意하고 여러 委員님들에게 通知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늦었지만 여러 委員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查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查官 趙南樂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새로 當 委員會에 補任되신 朴承載委員 그리고 金沄桓委員 또 전에 계시다가 다시 또 우리 委員會로 오신 金奉旭委員 朴實委員 許萬基委員 세 委員이 재직합니다.

먼저 朴承載委員 일어나셔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載委員 朴承載委員이올시다. 잘 좀 봐 주십시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金沄桓委員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沄桓委員 金沄桓委員입니다. 많은 指導 鞭撻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奉旭委員 朴實委員 許萬基委員 잠깐 外出하셨다가 다시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어나셔서.....

(人事)

1. 內務部長官出席答辯의件

(15時22分)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報告事項 다 마치고

全南道知事 公館內 大統領專用室 什器類隱蔽問題와 관련해서 內務部長官出席答辯의件을 이제부터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內務部長官出席答辯의件을 上程합니다.

이 案件은 委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全南道知事 公館內의 大統領專用室 什器類의 隱蔽問題와 관련 該處 內務部에서 自體調査 확인한 내용과 委員들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기 위해서 內務部長官의 出席要求를 지난 當 特委 6次委員會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오늘 上程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全南道知事 公館內 大統領專用室의 豪華什器 隱蔽事件은 國會의 존엄한 國政調査를 기만하고 방해한 行爲로서 명백한 犯法行爲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政府가 舊時代의 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도덕한 隱蔽 造作行爲를 恣行했다는 점에서 國民의 公憤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大統領專用室의 什器를 地方部署의 下位公務員이 任意로 옮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常識的인 판단과 靑南臺의 國政調査 拒否行爲와 연결시켜 생각할 때 이 豪華什器 隱蔽事件은 보다 上層部에서 組織的으로 行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輿論도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出席하신 內務部長官께서는 이 事件의 重大性과 國民의 公憤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本 事件의 眞實을 하나도 숨김없이 밝힘은 물론 이에 대한 長官의 立場과 책임 및 處理方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會議順序上 內務部長官이 나오셔서 이 事件에 대한 報告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尊敬하는 李基澤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內務行政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委員 여러분께 깊은 謝意를 표합니다.

먼저 本人은 아직도 일부 公務員들이 구태의연한 情性에 젖어 잘못된 行態를 자행함으로써 社會的 物議를 야기시킴으로써 國民과 委員 여러분께 본의아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지금까지

知事公館의 備品이 移動된 經緯에 대하여 全南知事를 비롯한 道關係 公務員들은 實務擔當者인 用度係長의 단독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왔읍니다는 사실은 全羅南道知事도 부분적으로 關與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經緯와 眞相을 요약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8月11日 全南知事 公館에 대한 國會特委의 現場調査 직전에 備品 一部를 移動시켰다가 原位置토록 한 事案에 대하여 全南道知事는 8月20日 道廳出入記者들과 國會特委 2次調査團 그리고 內務部의 備品 一部가 잠시 知事公館 인근에 있는 農村振興院에 옮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調査團도 착 전에 모두 原位置토록 지시하였으므로 調査活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實務者인 用度係長의 단독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解明 報告하였고 當事者인 用度係長역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읍니다. 內務部는 지난 8月20日과 21日 兩日間에 결친 國會特委 2次調査의 結果를 報告한 8月23日의 國會特委 全體會議가 끝난 직후 全羅南道의 解明과 報告에 대한 眞偽 및 2次調査時 지적된 事項을 확인하고 특히 備品量帳을 集中調査 什器등의 은폐기도 여부를 밝혀 내기 위해서 內務部幹部를 現地에 파견 調査토록 하였던 바 첫째 備品 隱蔽企圖 與否를 확인하기 위해 備品量帳 記錄 및 備品管理狀態를 實査하고 備品購入 關係資料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隱蔽企圖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備品の 移動事由가 上部指示 여부 公館으로 다시 옮긴 經緯와 移動時間 등에 關於하여 확인한 結果 國會特委 調査時 陳述한 내용과 同一하였고 備品을 옮긴 동기는 병풍은 報告場의 협소 그리고 그림은 보관불량 TV「세트」는 호화스럽게 보일 것같이 移動시켰다는 것이며 國會特委 調査前 옮겼던 備品은 모두 다시 公館으로 再 移動시켰다고 陳述하였고 用度係長의 單獨行爲라는 점에 모든 關係者의 陳述이 一致했읍니다.

셋째 公館隣近의 業務地區 解除與否에 대해서는 公館東側 2,870坪이 아직 解除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중 1,277坪을 점한 19號가

用途制限으로 인한 生活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째 國會特委 2次調査時 지적된 사항중
副知事 官舎內에 보관중인 備品明細와 보관이
유를 확인하였던 바 1985年1月 一部備品の
新規購入에 따라 既 사용중이던 備品은 公館
內 保管 場所가 없어서 備品臺帳을 정리하지
않은 채 종전 知事公館인 副知事公館 2層倉
庫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國會特委 調
査時 現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스기」나무
의자는 85年1月 納品받은 후 규격이 不適合
하여 85年5月 다시 제작토록 반품했으나 당
시 實務者 교체과정에서 引受引繼가 소홀하여
현재까지 京鐵道 利川所在 동명가구 工場에
그대로 보관중에 있었고 多用途室의 안마대와
이발의자는 87年 第68回 全國體典時 齊瓦臺
警護員의 지적에 따라 이발의자는 87年10月
公館倉庫로 안마대는 88年2月 평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문 수위실 뒤의 警護員宿所로
移動 보관중인 것으로 調査 확인되었습니다.

이와같은 調査結果를 바탕으로 道知事에게
關聯公務員에게 대하여 그 行爲에 상응하는
問責措置를 하도록 指示를 했던 바 8月25日
上京한 全南知事는 關聯者인 用度係長과 公館
管理者를 罷免 內務局長과 會計課長은 監督責
任을 물어 懲戒措置하겠다고 報告한 후 歸廳
하였으나 實務者에 대한 그와같은 措置가 자
신의 責任임을 통감한 知事가 8月27日 再上
京하여 長官에게 다음과 같이 訂正報告를 하
였습니다.

즉 8月10日 아침 8時頃 道知事가 內務局長
會計課長 用度係長등 關係公務員과 함께 公館
大會議室 및 2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大會
議室의 屏風은 報告會場이 비좁을 것같으니
접어서 한 쪽에 두도록 指示한 바가 있고
多用途室의 안마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은 사실이 있었으며 같은 날 午餐後
公館職員 정영섭에게 TV「세트」도 빈방으로
치우도록 指示한 바가 있고 정영섭이 이를
당일 18時30分頃 用度係長에게 다시 傳達했
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用度係長은 8月10日 10時頃 屏
風 3點과 안마대 등을 用度係 職員 김재우
로 하여금 道廳 淸夫들을 동원하여 農村振興
院으로 옮기도록 措置하였고 당초 地下室 倉

庫에 있던 그림 열두點은 知事나 用度係長의
指示는 없었으나 9時頃 用度係 職員 김재우
가 습기가 차서 保管狀態가 불량함을 발견하
고 현관에 꺼내 놓았다가 다른 備品과 함께
振興院에 이동시켰으며 TV「세트」는 用度係長
의 지휘하에 8月10日 21時頃 다른 備品과는
別途로 振興院 總務課長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經緯로 振興院에 옮긴 備品을 公
館으로 다시 이동시킨 經緯는 備品을 옮긴
다음 날인 8月11日 6時40分頃 道知事가 公館
의 준비상태를 最終點檢하는 과정에서 公館
管理者로부터 TV「세트」등 備品을 公館內가
아닌 振興院建物로 移動시켰다는 報告를 받고
振興院으로 이동된 備品 일체를 즉시 公館으
로 옮겨놓도록 會計課長에게 指示함으로써 用
度係長이 會計課 職員 김재우 정광덕과 公館
職員 정영섭 오세후등 4名으로 하여금 8月11
日 10時20分頃 道廳「트럭」을 이용하여 備品을
다시 公館으로 이동시켜 TV「세트」는 2層 居
室의 原位置에 그리고 大型屏風 한 點은 원
래 있었던 大會議室 入口 귀퉁이에 小型屏風
두點은 大會議室內 放送室에 두었으며 그림
열두點은 警護員室 倉庫에 보관하였고 按摩臺
는 正門 守衛室뒤의 警護員 방에 옮겨 놓았
다는 것입니다.

이상 그 經緯와 真相을 報告드렸습니다마는
비록 國會特委 調査活動 전에 그 잘못을 是
正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公務員들의 그릇된
思考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國家 社會의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그리고 아무
리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적당한 시기를 포착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여기에 이른 全南道知事의 소치는 公人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公務員에 대해서는 法과 規定
과 그리고 道義의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翁
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마는 그 동안
委員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國民에게
不信을 사게 된 점을 內務行政의 責任者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事件을 뼈아픈 敎訓으로 삼아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傘下 全 公務員들에게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
고 指導監督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

서 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內務部長官 報告말씀이 끝났습니다.

지금 長官도 상당한 부분 우리 特委委員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什器隱蔽事件에 관한 감정이 비슷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委員들이 듣는 가운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 疑惑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內務部長官에게 質問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奉旭委員부터 먼저 하세요.

○金奉旭委員 長官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도 全南道廳 公館에 參與를 해서 그 당시에 道知事가 報告하는 것이 거의 捏造된 縮小된 報告를 여러 委員들한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적해서 所要資料를 요구했는데 지금껏 한 件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本委員은 못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全南道廳公館의 大統領專用室이 불과 50坪밖에 안 된다. 이 50坪 사용하는데 엄청난 垆地 그 建物 그 人件費 所要費 이런 것을 비교하려고 그래서 資料要求를 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戰鬪警察이 1個小隊인지 中隊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 常駐하면서 警備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道廳 關係職外에 戰鬪警察이 1個小隊인지 中隊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常駐하고 있는 것을 隣近住民한테 듣고 그랬는데 이런 資料가 전연 안 와요. 그렇고 그렇게 報告하고 資料要求하고 전부 一連의 사태가 이것은 知事個人 한 사람이 이런 措置를 취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上部의 指示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按摩臺는 正門 守衛室뒤의 警備員 방에 옮겨 놓았음 이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按摩臺라는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고 아주 尖端技術로 만들어진 것을 警備室 뒤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國家의 豫算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長官의 指示가 없이 처음에 報告에는 用度係

長의 指示에 의해서 했다 道廳職員 네名 다섯名이 했다 네名 다섯名이 들 수도 없어요. 이 무거운 집기는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報告를 하시며 지금 長官께서는 전연 모르고 이제 道知事의 第2次 報告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國會가 한 두사람이 아니고 全體 非理特委 委員들이 현장을 가는데 가기 전에 이런 措置를 취했다는 것을 長官은 모른다고 오라발 내밀 수 있을 것입니까? 마땅히 이것은 長官이 責任져야 합니다. 이 什器가 비싸고 싸고 什器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公務員들의 자세가 國會가 現場調査를 가는데 가기 전에 이것을 치워요? 그리고 長官은 몰랐다고 여기에 와 사과를 할 정도라고 하면 나는 이런 答辯 들으려고 여기에 長官 오라고 한 것아닙니다.

長官은 분명히 여기에 責任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치사해서 器物이니 그림이니 이것 가지고 얘기하려고는 않습니다마는 변명의 여지가 너무 유치해요 會議室이 좁아서 치웠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會議室이 남아서 의자를 몇 100개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會議室 때문에 器物을 치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長官은 知事가 計劃的이고 무슨 僞裝的으로 했고 그러는데 이것은 知事次元이 아니라 長官 아니면 더 이상의 차원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보아서 마땅히 長官이 引責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長官의 具體的인 答辯을 한번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李聖浩委員 質問하세요.

○李聖浩委員 民主正義黨 李聖浩委員입니다.

內務部長官의 報告를 통해서 지난 全南地方 齊瓦臺에 대한 調査에서 一部 불미스러웠던 사실이 밝혀져서 꽤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유감되기 한량없습니다. 그 報告 內容中에서 좀 자세히 과연 여기 行爲者인 文知事가 왔으면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었는데 參席을 안했기 때문에 文知事에 관한 事項과 그리고 內務部長官에 관한 事項을 두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事件이 用度係長이 했다 나중에 知事가 一部關與를 했다 이렇게 結論이 났는데 또 이 내용이 쓸데없이 위에서 마치 指示한 것

처럼 誤解도 살 수 있는 요소가 그 간에 있었다 하는 것도 否認 못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用度係長이 單獨으로 했다 해놓고 나중에 知事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誤解를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이 是認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報告 內容中에도 조금 비쳤읍니다마는 25日에 內務部에서 處罰을 指示하고 그 處罰內容을 가지고 全南知事가 고민한 끝에 나중에 27日 心境變化를 일으켜서 內務部長官에게 와서 自己도 關與했다 하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心境變化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具體的으로 內務部長官에게 知事가 얘기한 사항을 여기에서 자세히 報告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調査團이 8月11日 光州에 갔읍니다.

그 전에 內務部長官이 道知事하고 電話를 했는지 電話를 했으면 어떠한 電話를 했는지 또 調査團이 도착하기 전에 全南道知事가 內務部長官에게 우리 調査團이 간다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電話報告를 했는지 했으면 그 電話報告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밝혀 줌으로써 이 내용이 또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해서 문졌읍니다.

그 사실을 자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炫委員 말씀하세요

○金炫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炫입니다.

長官님이 지금 報告해 주신 데 대해서 相異한 점이 있어서 우선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 全國體典 당시 警護員들의 지시에 의해서 평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문 수위실에 안마대를 갖다두라고 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88年2月에 갖다 두라고 했는데 5「페이지」에 보게 되면 5「페이지」 多用途室의 안마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묻은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 안마대가 수위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마대가 다섯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또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우선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오시려면 굉장히 深思熟考해서 모든 것

을 정리하셨을텐데 우선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오늘 報告 自體가 무엇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미 警護員들이 그리 치우라고 해서 치워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안마대를 知事가 보았다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지적을 해 드리며 정식으로 質疑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선 本委員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4「페이지」 맨 위의 2,870坪 解除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와같은 大統領이 쓰실 데가 全國에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곳에 전부 다 지금과 같은 警護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本委員이 大田出身이기 때문에 大田附近에 관심을 가지면 우선 飛龍臺는 觀光地이고 1日 觀光地 「코스」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儒城 東鶴寺 甲寺 분명이 1日 觀光地 「코스」로 어디보다 나은 立地條件을 가지고 있으나 飛龍臺 하나 때문에 근 5年동안 建築許可가 한 件이 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飛龍臺라는 사실을 本委員이 東亞日報에 내기 시작을 해서 겨우 88年4月8日字로 3層이하로 풀다가 그 뒤에 다시 報道가 되니까 6月字로 해서 12層까지 풀어는 주었읍니다마는 아직도 市街化調整地區라 하여 建設部許可를 말아야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國民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內務部長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현재 지금 公務員들이 舊態依然한 惡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國民의 便益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解除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答辯을 해 주시고 들께 안마의자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 보겠읍니다.

안마의자를 원위치에 갖다 놓아서 저희들이 調査를 하는데 전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長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再調査를 간 저희 4名中에 원상태로 돌려놓기를 命하고 한 時間이상을 주었으나 그 안마대는 돌아오지 않아서 本委員이 지적을 한 事件입니다.

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스기」의자라는 것이 아마 內務部長官께서도 보시지 못하셔서

「스기」의 자하니까 별 것 아닌 줄 알 것입니다. 價格이 123萬원에 附加價値稅를 붙이면 135萬원이 넘는 一般인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의자입니다. 이 또한 틀림없이 稅金의 일부입니다.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5年1월에 이 「스기」의자를 내보내서 지금까지 公務員이 그것을 現場에 갖다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全南道廳에 근무하는 전체 혹은 內務部 전체 公務員들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地域은 틀림없이 警護나 市民의 편의를 위해서 6,300坪이라는 막대한 全羅南道 道廳보다 더 넓은 敷地를 사용해서 二重三重의 담을 쌓아가면서 警護를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이 집중이 되었어야 할 場所에 3·4年 前에 나간 物件이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요번에 저희들 調査團이 가서 밝혀 주니까 이제 찾아서 어디있다 하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꼭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本委員이 再調査團으로 나갔을 적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까 內務部長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副知事公館에 가니 엄청난 物件이 또 쌓여 있었읍니다.

이것이 옮겨진 物件이 아니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內務局長이라는 분이 이것 朴正熙 大統領때 쓰던 것입니다. 그때 쓰던 것 8年 前것이라 지금 하등의 우리 기억조차 없고…… 그러면 物品明細 가져 오시오 하니까 찾아오겠습니다 한 지가 두時間이 넘어도 物品明細 書를 하나 못 찾아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몇 個道가 안되는데 과연 內務部長官님은 어느 정도로 下部機關의 公務員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報告하신 대로 85年1월에 3,800萬원 附加價値稅 붙여서 4,000萬원 이상의 방을 가꾸기 위해서 그건 物件을 전부 갖다가 먼지가 쌓이도록 國民의 稅金이 쓰지도 않는 2層 방구석에 다 있는데 物品明細書와 비교해 보고 제가 기억해 보니 거기서도 없어진 物件들이 많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몇 가지 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內務部를 믿고 國民으로서 앞으로 稅金을 낼 수 있을까 이것부터가 한심스러운 얘기며 內務部長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1次 2次를 다 다녀온 저로서는 公務員들의 紀綱 公務員들의 精神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해 드립니다.

用度係長은 요번에만 本人이 했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本人의 罪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4年 前에도 지금과 똑같은 上部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4·5年 前에도 제가 했읍니다 하는 아주 쉬운 얘기로 들레 公務員의 얘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총대반이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 분명히 4·5年 前에 있었다는 일은 무엇인지…… 지금과 흡사한 일은 없는 지에 대해서 우선 質問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金法桓委員까지 質問을 1次 마치시고 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浩委員 委員長! 내가 文昌洙知事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長官께 答辯을 하라고 했는데 文昌洙知事가 왔기 때문에 다시 상황을 반복해 드리고 知事가 직접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李委員! 오늘 여기 內務部長官을 出席시켜서 質疑 答辯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知事가 答辯해야 될 그런 부분이 必要性이 꼭 있다고 하면 우리 委員會에서 全體委員들의 양해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李委員! 그것은 다음으로 돌리지요.

○李聖浩委員 그렇게 하지요.

○委員長 李基澤 金法桓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法桓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法桓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장식품의 質과 量 이것보다도 그 行爲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長官께서는 병풍이라든지 액자 몇 개 隱蔽시킨 것은 별로 하찮은 일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立法府의 固有權限인 國政調査를 함에 있어 政府가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隱蔽 造作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있을 國政監査 및 調査活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번 什器隱蔽事件은 行政府로서 國會에 대한 하나의 挑戰行爲로서 이 事件을 적당히 넘기리라고 보지 않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內務部長官께서는 이에 대한 全的인 責任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責任을 질 것인지 명확한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內務部長官 우선 네 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네분 委員님들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奉旭委員께서 이것은 上部指示가 아니겠느냐. 道 자체에서 이와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公館에 있는 專用施設에 있는 備品은 원칙은 거기에 대한 管理指針을 警護室에서 내리게 되고 또 實務的인 管理는 그 公館을 사용하고 있는 全南道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서는 內務部가 거기에 직접 관여하기가 매우 좀 이상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와같은 조금 애매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서 만일 內務部本部에서 그것을 隱蔽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備品臺帳은 그대로 두면서 現品만 치우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備品の. 目錄이 언제 購入하고 무슨 備品이 있다 하는 것이 그대로 備品臺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物件만 치우는 이런 어리석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역시 아까 報告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公務員들의 잘못된 타성 이것을 빨리 바로 잡고 바로 세우지 못한 이 責任을 長官으로서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李聖浩委員님께서 調査團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한 과정에서 언제 長官과 文知事가 電話通話를 했느냐 또 電話通話內容은 무엇이나 하고 質問이 계셨습니다.

新聞에 이것이 처음 그 備品을 치웠다 하는 報道가 된 것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朝刊을 출근하는 自動車속에서 보았습니다. 自動車속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출근하자마자 事務室 의자에 앉자마자 全南道知事 電話를 대라고 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그 電話를 연결하고 있는 중에 民主正義黨에서도 電話가 와서 어떻게 된 일이나 하고 저한테 問議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자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기 때문에 民主正義黨에도 정확한 答辯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차에 道知事하고 電話連結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도대체 新聞에 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추궁을 한 결과 그 당시 全南道知事 答辯이 이미 委員 여러분께서 2次調査를 가서 확인하신 내용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答辯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 備品臺帳입니다.

“당신들 혹시 備品臺帳 변조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全南道知事 얘기가 “備品臺帳 그대로 있습니다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 知事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겠구나 知事가 관여했다면 그렇게 備品臺帳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物件만 다른 데에 옮기는 이런 어리석은 것은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末端 下部職員들이 좁은 소견에서 과거의 그 타성에서 그런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절대 備品臺帳이고 뭐고 손대지 말고 知事 얘기가 다시 원위치시켜 놓았다고 하니깐 그러면 다행이다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公館內에 있는 집기 그것은 원상태 그대로 調査團에게 調査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調査를 받도록 해라 하고서 일단 電話를 끊었던 사실이 있다 하는 報告를 드립니다.

金 炫委員께서 報告書 4「페이지」에 88年2月에 안마대를 다른 데로 치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는 또 이번에 옮겨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質問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은 全南道에서 잘못 그러니까 틀리게 報告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全國禮典때 警護員들이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이발용의자만 옮겨놓고 안마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調査團이 도착하는 그 전날 農村振興院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것을 원위치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로 옮겨놓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最初報告가 잘못된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틀린 얘기가 거기 기재된 것입니다.

○**俞 煥委員** 안맞아요. 뭐냐 하면 제가 가서 발견한 장소가 들어가 守衛室 뒷쪽에다가 침대 쪽 놓고 똑같은 「커버」로 뒤집어 씌어 놓았었는데 뒤에서 얘기하기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한번 옮겼다가 그것을 원상태로 못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앞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內務部長官님은 이것 報告받으시는 그대로만 報告를 다시 해 주는 것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렇습니다. 저는 現場에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俞 煥委員** 그러면 하나만 여쭙어 보지요. 報告를 잘 받으셔서 그날 틀림없이 內務部長官이 記者들을 통해서 이는 朝鮮日報 記者가 誤報다 청소하고자 잠깐 치웠던 것을 誤報했다 라고 아주 그것을 천명하다시피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 제가 現場에 두번 직접 다녀온 사람으로서 지금 이 報告內容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맞질 않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러니까 그 細部的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全南知事가 옮겨진 과정 안마대가 어떻게 時差別로 옮겨졌나 하는 것을 知事로 하여금 정확한 報告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俞 煥委員**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內務部長官님이 여기 오셔서 저희 같은 議員으로서 長官으로서 報告해 주시는 것은 진상을 정확하게 報告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지 報告資料를 와서 읽어 주시려면 이런 報告 뭐하러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報告資料 읽어 주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닙니다. 그 안마대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이 日字別로 時間別로 달라지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도 처음에 2次調査團이 내려 갔을 때

知事가 거짓報告를 했던 것을 지금 바로 잡아서 제가 지금 報告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俞 煥委員**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어 보지요.

분명히 朝鮮日報 記者는 誤報를 했다 청소하느라고 내놓은 물건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잠깐 내놓았다 들여 놓은 것을 보고 誤報를 했다 라고 분명히 內務部長官이 記者들에게 발표를 하셨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記事內容은 저도 보았음니다라는 솔직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事件이 발생한 이래 저는 記者에게 입을 한번도 벌린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李聖浩委員께서 質問하신 내용을 答辯할 때 黨에서 제가 出勤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 저는 事態把握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知事와 전화를 통하니까 委員님들 여러분께서 2次調査내려 가셨을 때 報告를 들으신 바와 똑같은 報告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次官이 그때 제가 전화받을 때 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次官에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아까 民正黨에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民正黨에 이 얘기를 알려 주세요 하고 제가 次官에게 指示했습니다. 그랬더니 次官이 民正黨에 이 내용을 알려 주었는데 아마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알려 드리는 과정에서 청소차 갔던 職員들이 그 물품을 옮겼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傳達를 받은 사람들은 청소를 위해서 그것을 옮겼다 하는 것으로 서로 그런 錯誤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는 저나 內務部本部에서는 이 문제를 記者들에게 해명을 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報告를 드립니다.

○**俞 煥委員** 다시 여쭙어 보지요. 記者가 그대로 지금 長官님 말씀대로 청소차라는 이야기 정도 가지고 誤報다 라고 찍혀서 나올 정도라는 것은 사실 힘든 이야기입니다. 記者들이라는 것은 거의 정확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習性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청소차 치운 誤報다 라고 명백히 찍혀서 만일 저희들이 再調査를 내려가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記者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國民의 알 권

利를 誤報한 것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높다 높으신 분이 기자분 한분 가지고 是非결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國會內에서만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하나 그러면 다시한번 여쭙어 봅니다. 아까 長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第2調査團이 내려 가기 전에 모든 것이 原狀復舊가 되어서 調査에는 전혀 支障이 없었다 라고 지금 報告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네명의 幹事가 내려갔을 때 그 多用途室이라는 부분에는 전혀 原狀態로 돌아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知事에게 張慶宇委員 등이 原狀態로 돌려 놓아 보라 해서 原狀態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랬어도 안 돌아 온 물건이 있어서 제가 用度係長을 따로 불러서 아직도 안 돌아 온 것이 있고 치운 것이 있으니 하나라도 더 발견을 하면 지금까지 報告한 것은 다 無效化시키겠다 그래도 분명한가 하고 세번씩 다짐을 했는데도 이상없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같이 立會하시오 해서 그 당시 光州 朝鮮日報 光州 한겨레신문 記者 들을 立會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당신 손으로 벗기시오 그러니까 그때서 벗겨 놓고는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은 전혀 진짜 모릅니다 하는 지금 이 報告內容과 엉뚱한 내용의 事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長官님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서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長官님이 報告하신 내용은 그러면 밀의 職員들이 다녀와서 손발 맞춰서 입맞춰서 해놓은 것을 그대로 저희에게 報告해 주시는 것이나 정확한 報告라고 생각하시느냐 그 문제만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저 역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의 幹部들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最終적으로는 제 판단에 이것은 진실에 가깝다 진실할 것이다 하고 확신이 서는 것을 이 자리에 報告를 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專用室 부근에 있는 물품들이 항상 固定되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大統領이 내려가실 때 그때

또 이것을 다시 새로운 그림이 12具가 있으면 이 그림을 붙였다 저 그림을 붙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병풍을 이렇게 바꿔놨다 저렇게 바꿔놨다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없다고 하는 물건은 꺼내서 다른 데 保管하고 거기다 넣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어떤 物品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고 딱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道の 用度係長은 그 物品을 公館內에서는 관리를 하기 위한 實務責任者로서 옮길 수 있는 재량이 어느 정도 부여 돼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公館外로 옮겼던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報告에서도 말씀을 드렸음니다마는 이 物品을 農村振興院으로 가져갔었다 하는 行爲 자체 여기에 대한 道徳性問題라든가 公務員들의 잘못된 行態 이것은 마땅히 질책을 받고 책임추궁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이 備品臺帳에 그대로 있고 그 물건들이 公館內에 있는 이상 決定的으로 調査活動에 지장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補充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長官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長官이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사실 다른 委員들이 專門적으로 2次 조사를 갔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質疑는 안하겠음니다마는 知事が 지금 현재 長官에게 虛僞로 아직까지 報告를 한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또 長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國民의 의혹에 관한 事件을 저질렀는데도 직접 어떻게 했나를 한번 확인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등…… 그 다음에 1次 우리가 8月12日 조사를 갔을 때 道知事の 報告事項 그 이후에 備品을 隱匿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 4黨幹事들이 가서 조사한 調査報告書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全南知事が 우리 調査委員會에 쓴 陳述書가 있습니다.

또 內務部에서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1次 2次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충실한 答辯이 잘 안됩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러니까 前半部는……

○金東周委員 前半部는 자기가 虛僞로 報告를 했는데 그 이후에 長官에게 良心告白이라 할까 사실대로 이야기한 그 부분도 지금 앞부분 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앞부분하고 틀릴 수 밖에요……

○金東周委員 2次 우리 4黨幹事들이 내려간 調査委員들에게는 虛僞로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그 말을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長官이 이야기하는 말을 믿어도 됩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렇게 믿어 주세요.

金 炫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마저 答辯을 하겠습니다.

「스기」나무 의자가 利川에 있는 家具工場에 85年度에 간 것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문제라든가 또 交替된 備品이 副知事公館에서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公務員의 勤務行態나 紀綱問題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제셨습니다.

저도 술적으로 같이 金委員님 말씀에 同感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저 자신의 內務公務員들의 紀綱을 확립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參考해 주실 事項은 만일 道廳의 다른 備品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아마 허술하게 관리가 안됐을 겁니다.

專用施設에 사용하던 備品 그래서 源泉적으로 이에 대한 處分權이 道에 있지않은 이런 備品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혼선이 일어나서 특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70坪의 業務地區 解除되지 않은 땅이나 또 大田의 飛龍臺 주변 이런 데에 業務地區로 指定이 되어서 國民이 불편을 겪고 있는 事案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原則적으로는 內務部所管은 아닙니다. 建設部나 該當機關들 하고 협의를 해서 國民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內務部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 하는 答辯말씀

을 드립니다.

金 沄桓委員께서 “長官의 責任이다” 이것은 責任을 어떻게 지겠는가 하는 말씀이 제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實務責任者들 직접 責任이 있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責任을 묻고 그리고 저 자신도 반성하면서 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이 기꺼이 달게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말씀 드렸습니다.

○李聖濬委員 제가 道知事가 27日 以前까지는 本人이 관련한 것을 얘기 안하다가 27日 올라와서 長官께 報告를 하고 本人이 관련을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심경의 변화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해서 그렇게 長官께 報告를 했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事項을 本人이 뒤에 있지만은 長官이 그때 얘기한 심경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까도 報告말씀을 올렸음니다. 用度係長이나 그 밑의 部下職員에게 全 責任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知事 스스로의 良心上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부분 이것을 정확히 報告를 하고 밝히고 자기 스스로가 責任을 질 각오를 하고 사실대로 報告를 한다고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李聖濬委員 그리고 또 자기가 報告를 하면서 그 事案이 어떤 意圖性이 있었는가를 長官이 거기에서 感知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感知를 했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까 報告에서도 말씀드렸음니다. 知事は 절대 公館 바깥으로 옮기는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음니다.

그러니까 公館 내부에서 그 위치 일부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음니다. 備品 臺帳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뒀었다 이런 것으로 봐서 知事は 이것을 꼭 은폐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金事旭委員 補充質問입니다.

같은 國會議員일는가 몰라도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質問하는데 長官은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總務處長官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本委員이 서두에 質疑를 하기를 光州에 가서 現況說明할 당시에 여러 가지 資料를 요구를 했습니다. 벌써 어언 20일이 넘었는데 한 件도 資料가 안왔어요.

長官! 처음에 序頭에 資料要求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역시 長官이 責任지고 물러날 長官이기 때문에 答辯을 안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現代公論 8月號에 나온 梁교수의 「右翼은 죽었는가」라는 이 「프린트」가 長官이 엄청난 부수를 10萬部 이상 부수를 關係公務員에게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5共和國非理와 光州調查特委가 갖는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쇄물을 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조금 관련해서 質問을 해야겠는데 우선 다른 委員들 質問을 끝내고 末尾에 이것은 얘기를 할랍니다.

아무래도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야겠는데 아직 質問을 안한 委員들이 있어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어찌서 그 당시에 本委員이 여러 가지 資料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왜 안 보내 주는지 長官께서 所信있는 答辯을 해 보세요. 아무래도 長官이 시킨 것 같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지금 확인해 본 결과 金奉旭委員께서 요구하신 資料는 8月23日 이미 全南道의 직원이 專門委員室에 접수시킨 것으로 제가 報告를 받았읍니다.

○金奉旭委員 專門委員은 內務部傘下 직원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닙니다. 國會職員입니다.

○金奉旭委員 國會職員이 아니고 內務部傘下職員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안 왔읍니다. 안 보냈으니까 안 왔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여기 보낸 資料들이 있습니다.

○金奉旭委員 長官도 거짓말 答辯만 하고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줍

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8月23日 全南道에서는 제출했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8月23일에 아마 事務處에 접수가 됐는데 職員 이야기는 다른 現場調査 때도 다녀보니까 資料要求를 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오면 收畝를 해서 委員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 委員長에게도 報告를 안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金奉旭委員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內務部長官 答辯 계속하세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다음에 金奉旭委員께서 道知事公館에 戰鬪警察이 1個小隊인가 1個中隊가 常駐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平常時에는 이 公館警備를 請願警察 5名이 專擔하고 있습니다. 平常時에는 戰鬪警察이 거기에 配置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集團示威가 있다든가해서 公館으로 示威를 하면서 온다든가 할 때 그때그 때 형편에 따라서 戰鬪警察들이 일부 配置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平常時에는 固定配置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에 孫周恒委員 質問하시고 朴進球委員 金奉祚委員 盧武鉉委員 順으로 質問하시고 民正黨의 梁委員 質問하시고 난 다음에 答辯듣고 趙昇衡委員 나중에 一問一答式으로 質問하세요.

○孫周恒委員 平民黨의 孫周恒委員입니다.

저는 사실상 李春九長官께 할 말이 많읍니다. 할 말이 많은데 지금 特委에서 만들어진 議事日程에 의해서 全南道知事 官舍의 備品隱匿 및 여기에 대한 虛偽報告 그리고 監督責任者로서 그것이 主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약해서 세 가지 정도로 分類되겠읍니다. 또 제 뒤에 質疑할 委員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우리 李長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李長官께서 冒頭에 말씀하신 아직도 일부 公務員들이 舊態依然한 作態를 행하고 있다 대단히 이것은 國民들에게 송구한 일이다 그

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一部 公務員들이 舊態依然한 作態를 했기 때문에 國民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舊態依然한 作態는 全南知事나 全羅南道 道廳會計課에 있는 車係長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內務部長官인 바로 國務委員 당신 李長官에게 해당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냐! 李長官께서 8月初에 저희들이 全南道知事 官舍를 現地調査를 할 때에 그 무렵에 바로 조금전에 冒頭에 좀 끄집어 냈읍니다마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그것도 1·2 百萬원도 아니고 1,000餘萬원을 들여서 소위 「右翼은 죽었는가」 라는 그 冊子를 全 公務員들에게 시달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公務員들에게 시달렸던 그 冊子の 내용이 작금 여러 가지 지금 國民들 사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物議를 일으키고 있지만 바로 그 자체가 아직도 舊態依然한 作態를 우리 李長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李長官께서 저희 黨의 副總裁이신 文東煥委員이 찾아가서 묻는 얘기 가운데에 이렇게 答辯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보니까 이 時局에 지금의 상황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내 마음에 꼭 들어서 내가 나라의 돈으로 印刷를 10萬部 남짓하게 해가지고 우리 內務部傘下의 公務員들에게 전부 配付하도록 指示를 했다.” 그 내용은 물론 이 座中에 있는 委員들이나 우리 李長官도 그것을 다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아주 公明正大하게 中立을 지켜야 할 李長官이 傘下의 內務公務員들에게 配付를 했다 그 말씀이요. 그런다고 하면 충분히 全羅南道 道廳官舍에 지금 豪華備置되어 있는 그 什器는 5共非理特委調査委員이 가기전에 너무나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國民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李長官께서는 이것은 靑瓦臺警護室하고 어떻게 뒤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責任이 아주 상당히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어떻게 되었건 당신의 傘下에 指揮監督을 해야 할 道知事가 지금 이것을 管掌하고 있고 道知事 官舍하고 꼭 붙어 있는 이러한 靑瓦臺別莊이

그 什器가 隱匿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만다행으로 발각이 되어져가지고 天下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전부 노출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全國民앞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豪華什器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隱匿하고 그 사실을 僞證하고 그 사실을 國民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公務員을 指揮監督해야 할 最高責任者인 李長官의 평소의 政治의 所信이나 혹은 行政의 所信이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偏見 나는 그것을 대단히 위험스러운 思考方式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것이야말로 舊態依然한 李春九長官의 思考方式이다 이것이야말로 큰 責任을 져야 할 첫째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오늘날의 政局이 작금에 新聞의 論調에도 대단히 뒤숭숭한 政局이라고 말하고 있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주 겹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통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新聞읽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선량한 모든 國民들이 전전긍긍 이 事態에 대해서 銳意注視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國務委員 가운데 이름을 擧名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逓信部의 吳某나 혹은 文化公報部의 鄭某같이 그렇게 아주 穩健派가 있는가 하면 우리 李長官이나 혹은 總務處의 金長官같은 強硬派가 있다 이 말이요. 모든 政局의 불안이나 올림픽이후의 모든 混亂事態를 야기한다고 하는 작금의 市中的 流言蜚語나 혹은 여러 가지 떠돌고 있는 심상치 않은 그런 소문의 底流의 근원이 바로 李長官같은 그런 強硬派의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時局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런 次元에서 나는 李長官 자신이 이것은 좀 擴大解釋인가는 몰라도 평소의 그러한 行政方式이나 그러한 政治方式이 그러한 思考方式이 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李長官 이러한 時局에 즈음해서 더욱이 和合을 주장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國民들이 時局의 安定을

원하고 있는 이러한 時點에 李長官같은 強硬派는 나는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李長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時局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올림픽이후의 安定을 위해서 당신과 같은 強硬派들은 물러가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李長官 本人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실사 李長官이 아무 것도 모르고 道知事가 指示를 해 가지고 什器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李長官 책임져야 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長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道知事가 잘못된 것 道知事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什器 몇 個 옮기고 무슨 감추고 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時點에 가장 國民들의 焦點이 되고 있는 그러한 非理를 國民한테 뭇뭇이 公開해 가지고 5共和國의 非理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6共和國는 絶對 清算하지 이런 것을 繼承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踏襲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한 그것을 세상에 露呈시키고 歷史에 告發하는 데 저희 5共和國非理特委의 큰 意義가 있고 큰 責務가 있는 것인데 당신들은 그것은 어떻게 되었건 第2次報告에 의해서 知事가 間接的으로 자기도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고 한다면 知事를 그냥 주어진 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고 당신도 우리 盧泰愚大統領이 辭表를 내지 말라고 해도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가야 해! 여러 가지 불씨가 그리고 평소의 思考方式이 이런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조금 전에 어떤 與黨委員이 말씀을 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보통 穩健派長官같은 정말 國民들의 輿論이 무서워서도 全羅南道 光州에 한번 가보았어야 해요. 그래서 現場도 가보고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구석구석을 봐야 해요. 그것이 國民에 대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報告나 딱받고 監査官이나 現地에 내려보내서 傲慢不遜하게 더군다나 이것은 議題外의 發言이지만 당신은 主導勢力으로서 이 5共和國의 初半期에 三清教育隊를 발상한 醇化教育의 最高責任者입니다. 그런 次元에서는 대단히 國民들이 당신의

舉一動을 銳意注靚하고 있어요. 더구나 李長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自他가 공인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겸허하고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리고 더 부드럽게 처신을 하더라도 國民의 눈에는 強하게 보이는데 작금 冒頭에서 本委員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상의 물의를 일으킨 것이 어찌 한두 번이나 그 말이에요.

내가 정확한 情報를 가지고 있는데 總務處 金長官도 당신하고 깊은 관계가 물론 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의 관계가 아닌 強硬派로서의 깊은 紐帶를 맺어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野團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더욱이 지난번 大統領選舉때 直前に 우리 政府에서 그것도 一個人이 아니고 個人部處가 아니고 文化公報部에서 金大中은 빨갱이라고 하는 책자를 수십萬部를 찍어가지고 選舉直前に 幽靈住所에서부터 많은 公務員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렸다 그 말씀이야! 그런 것을 모방을 한 바로 國務委員 그 자체가 당신이 거기에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한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점에 대해서 당신은 責任을 져야 한다 그 말씀이야!

(「議題外發言이요」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昨今 吳部長 「테러」事件에 國防部長官이 아주 勇斷을 내렸어! 그렇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情報司令官이나 情報司令部에 있는 將軍들 들을 拘束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勇斷을 李長官이 내려야 해요. 이런 것은 氷山の 一角이지만 이것을 세상에 公表하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모든 것을 당신은 剔抉을 하고 그리고 5共和國의 모든 非理를 人情으로 맺어진 金斗煥씨의 관계를 깨끗이 끊고 그렇게 하고 非理를 克服하고 그리고 당신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長官 意見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結론은 5共非理와 관련이 되었읍니다마는 조금 本論에서 비약했다고 할 까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서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本論을 벗어나지 않도록 質疑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朴進球委員 말씀하세요.

○朴進球委員 朴進球委員입니다.

저는 30年間 內務公務員을 한 사람으로서 身上發言을 겸해서 이번 事項에 대한 質問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孫委員님께서 다른 政治的인 發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人間的인 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陳述臺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文昌知事는 國家事務官으로 저는 地方事務官으로 內務部 財政課에서 같이 일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 內務公務員으로서 3·4個月前까지도 같이 같은 입장에서 勤務를 했습니다.

지금 또 答辯을 하고 계시는 內務長官님께서서는 제가 內務公務員에 있으면서 長官으로 모시던 분이 또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마음 속으로 攻駁을 받으시는 걸 보고 公務員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全南道知事 公館에 가가지고 什器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봤습니다. 봤을 때 知事나 關係公務員이 다 말을 하기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調査를 하는 데 편의를 圖謀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지나다가 그 다음에 재차 4黨幹事가 갔을 적에 그때는 바로 新聞에서 什器가 移動되었다 한 이후입니다. 갔을 때에 그 什器를 振興院으로 옮긴 것이 탄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 什器가 移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잘 모를 정도였다면 무언가 그 원인이 있었겠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평소에 그 公館에 있는 什器를 자주 振興院에 옮긴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통상 公館에 있는 什器는 振興院에 가져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는 것이 인식될 정도로 그 情況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연 있었다면 몇 번이나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國會特委가 道知事公館을 現地踏査한 것이 8月10日 12日 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新聞의 報道를 보고 4黨幹事가 現地に 내려가서 再確認하고 그리고 內務部에서 또 監査官을 班長으로 해서 監査를 하고 그

리고 知事가 1次 長官께 일부러 上京을 해서 指揮 報告를 할 때까지 用途係長 單獨行爲라는 것을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방도 그렇게 믿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오늘 內務長官께서 報告하는 이 資料는 全南知事의 報告를 기준으로 해서 作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內務部가 全南知事가 報告한 것을 다시 再確認해서 報告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全南知事가 그 公館管理 責任者이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인데 長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어떠한 虛偽事實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에는 정말 우리 國民들이 政府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再調査 再確認해서 報告하겠노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公職社會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부탁 말씀입니다. 지금 與野委員님들이 質問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公職者의 情性 公職者의 情性 이러시는데 사실상 제가 公職者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公職者들 일도 잘하고 다 착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常識的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오늘 여기 參席하신 많은 분들이 內務公務員입니다마는 16萬 內務公務員이 정말 피땀 흘려 일한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事件으로 인해서 公職社會에 不信이 있다고 보는데 그 國民이 公務員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16萬 內務公務員의 名譽回復方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金沄桓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備品の 質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隱蔽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同感입니다. 사실상 大統領이 國政을

보는 데 있어서 TV 3를 보아야 합니다. KBS 채널 두 개 보아야 하고 MBC 보아야지요. TV 세 개는 있어야 합니다. TV 세 개 있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또 조금 價値尺度的 차이가 있겠지마는 조금 더 좋은 침대에 잤다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왜 잘못 생각했가지고 그것을 치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평소에 아이고 너무 고급스럽게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그 치운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또 國民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長官께서는 세 번이나 거짓 說明을 듣고 한 번 거짓 報告를 받았는데 또 그 報告만을 믿고 여기에 答辯을 하셨다가 거기에 또 다시 다른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를 생각해서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再調査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동안 일해온 우리 公職者가 이로 인해서 매도를 당한다든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16萬 內務公務員들의 名譽回復方法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소신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徐廷華委員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廷華委員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廷華委員 지금 저희 特別委員會가 지금까지 運營해 오면서 존경하는 委員長께서나 또는 與野委員들 공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委員會가 있는 진실 그대로를 밝히는 데 모두 다 總力을 기울이고 또 이 委員會가 혹시나 政治目的으로 政治宣言으로 또는 政治攻勢로 빛나가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왔고 인식을 같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某 野黨委員께서 質疑하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議事日程에 포함되어 있는 3個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최근의 政治問題化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集中的인 얘기를 하면서 議題外的 發言을 했음이다라는 委員長께서 결국은 조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委員會가 다른 委

員會나 또는 다른 特別委員會에서 常任委員會나 其他委員會를 통해서 거기서 質問 答辯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委員會 이렇게 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調查의 眞實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突점을 흐려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 근래에 言論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重點的으로 얘기하면서 內務部長官의 答辯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本委員이 알기에는 이 答辯要求事項은 本議題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部分的으로 그와 관련된 質疑에 대해서는 長官이 答辯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委員長의 해명을 바랍니다.

○許萬基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許萬基委員 말씀하세요.

○許萬基委員 지금 우리 特別委員會에서는 분명 內務部長官을 召喚을 해서 質疑를 하고 있습니다.

內務部長官은 國務委員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멤버」일 뿐만 아니라 또 특히 現 內務部長官께서는 第5共和國을 탄생시킨 國保委의 주요한 「멤버」입니다. 世稱 改革主導勢力의 代表的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평소 행동 양식이나 思考方式 또 思想體系를 本委員會에서 質疑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梁教授가 쓴 「右翼은 죽었는가」라는 책자를 數十萬部를 배포한 문제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事案 자체에 대한 質問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梁教授의 論文을 數十萬部를 國費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全 國家公務員들에게 배포한 그 理念的인 배경을 質問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議題外的 發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例를 하나 들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읽어보았읍니다라는 이 「右翼은 죽었는가」라는 論文의 내용을 보면 이 나라의 野黨은 물론이요 與黨까지도 심지어는 官界 法曹界에도 左翼이 침투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나라에는 처음에는 左翼과 提携한 세력의 政權이

들어서고 그 다음 段階는 左翼勢力이 主導하는 聯合勢力의 政權이 들어서고 窮極의으로는 완전한 共產政權이 들어설 것이다. 이 나라의 구석구석이 左翼勢力이 浸透해 있고 마침내 이 나라에는 左翼勢力에 의한 政權이 樹立이 되고...」 이런 중대한 사실을 명확히 어떤 根據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나 확실히 명확히 言及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內務行政의 首長인 長官이 이 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共產政權이 들어설 것이다 하고 結論을 명백히 지은 論文을 이것을 數十萬部를 우리 公務員들에게 配布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 思想體系에 대해서 우리 國會議員들이 長官한테 質問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質問합니까? 사실 什器 한두 個 옮긴 사실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따라서 저는 徐廷華委員의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는 反對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國會議員들은 충분히 質問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委員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質問을 함으로 해서 內務長官의 확실한 思想體系를 이 時點에 완전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마디만 더 添加하면 이 左右翼論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先進諸國에서는 이것을 進歩勢力이니 保守勢力이니 이런 것으로 表現합니다.

굳이 이 나라에서 左翼이니 右翼이니 하는 表現을 써가면서 二分法的인 그런 방법으로 國論을 分裂시키고 保守 對 左翼의 싸움을 觸發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단히 이것이 중대한 事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內務長官이 出席한 이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質問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 委員들의 質問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辛再基委員 말씀하세요.

○辛再基委員 아까 저도 議題外 發言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앉아서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이 會議가 內務部長官의 思想體系를 알려고 하는 會議가 아닙니다.

文字 그대로 5共非理調查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特別委員會고 또 오늘 內務部長官께서 여기서 出席하시가지고 答辯을 하게끔 되

어 있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論議를 하고 內務部長官을 出席시켜야 되겠다 하는 表決까지 우리가 갔읍니다마는 그때 그 目的은 全南 地方 青瓦 薑 什器 備品의 位置를 갖다가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論議하다가 그런 過程에서 그 什器를 옮기게 한 指示者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오늘 內務部長官을 여기에 출석 시켜서 지금 答辯을 듣고 있는 狀況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은 우리 調查特別委員會가 賦與된 範圍內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여기서 모든 國政을 다 討議한다는 것은 이 委員會의 運營을 效率的으로 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權限밖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委員長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國民들이 5共非理에 대해서 빨리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全國民의 생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委員會가 效率的으로 앞으로 運營이 되어서 所期의 成果를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本 委員會에서는 주어진 範圍內에서 또 議事日程이 明示한 範圍內에서 會議가 進行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國民의 疑惑을 빨리 밝힐 수 있는 그러한 會議로 갔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與野 두 분씩 議事進行發言을 마쳤읍니다. 우리 特委가 안고 있는 使命이 원래 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역시 바쁩니다. 그러나 委員의 發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國會 경험도 많겠읍니다마는 왕왕 본질을 벗어나서 또 國家 장래가 政治 장래가 걱정스러워서 質疑도 하고 또 答辯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혹 봤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本 特委는 非理調查特委이니만큼 이제 말씀하신 委員 質疑하신 委員 또 議事進行發言을 하신 委員 다 잘 듣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委員長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孫周恒委員 質問에 대해서는 內務部長官이 앞으로 다른 委員들의 答辯도중에 순서가 오면 答辯을 해 주시든지 하는 것은 長官에게 맡겨두지요. 맡겨두시고...

○孫周恒委員 왜 長官한테 맡겨 두어요?

○委員長 李基澤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長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5共非理特委이기는 하지만 역시 政治를 하는 일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內務部長官이 나오신 김에 자기가 所信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많은 冊子를 配布했다면 또 얘기해줄 수도 있으니 지금 內務部長官이 지금 한다 안한다는 얘기를 안했으니까 일단은 內務部長官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에 또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고...

○孫周恒委員 委員長! 내가 이것을 일부 輿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평소의 行政觀이나 政治觀을 가지고 있는 長官이기 때문에 충분히 國民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家具隱匿같은 것 밤에 指示하고 낮에는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낼 수 있는 그런 人格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長官같으면 梁東安教授 이런 위험한 思考方式을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글을 감히 國費를 가지고 10萬部 이상이나 찍어가지고 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李春九長官이나 되니까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平地風波를 일으키고 國民의 總和...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和合스러운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內務部長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議題外 發言은 삼가시오」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이것은 李春九長官이 안 한다고 하면 당신은 良心의 苛責을 받아! 그리고 國民한테 알려야 해! 그리고...

(「議題內的 調査委員會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委員長 李基澤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가만히 좀 계셔봐요.

우리 開議한 지가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잠깐 停會를 하고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7時 會議中止)

(17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이제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을 續開합니다.

金奉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祚委員 金奉祚委員입니다.

지금 李春九 內務部長官께서 우리 國會의 5共非理特委에 나와서 答辯하는 것을 보고 역시 온 國民이 李春九長官에 대한 여러 가지 不安한 그러한 감을 떨칠 수가 없구나 함부로 僞證을 하고 제멋대로 대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왔구나 하는 생각을 본委員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온 國民들은 5共和國에 있어서의 權力으로 그 大統領이라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이 좁은 땅 덩어리를..... 우리가 光州에 가서 보았읍니다마는 5,000餘坪의 땅을 그렇게 任意로 道知事公館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지어 놓고는 자기가 居處하고 또 가는 여러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땅을 使用하고 있구나... 報告에서 변기나 욕실은 外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변기나 욕실을 外製를 쓸 때 거기에 設置했던 다른 裝身具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을 國民들은 궁금해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大田에 있는 飛龍臺에 가서도 보았읍니다. 그 5,800餘坪의 땅을 그대 大統領이 말이야 거기에도 外製! 外部에 지은 벽돌도 外國에서 輸入했고 안의 內裝材「타일」등 전부 伊太利製 변기 욕실할 것 없이... 그것을 보고 우리 5共特委 委員들 모두가 다 여기에서 무슨 愛國心과 愛國愛族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울분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世宗研究所로 改稱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日海財團 거기에 가서 보십시오. 20萬6,000坪 이것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國土의 公概念을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대 한 50餘名 研究員이 있는 그 研究所에 20萬6,000坪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딱 차지하고 거기 보면은 또 거기에 別途로 金斗煥씨가 평생토록 居處하기 위해서 別途의 또 울을 쳐

가지고 第2의 迎賓館이다 이래서 여기 지난 4月18日 날짜로 記者들에게 公開했을 때 거기에 한 房을 보면 우리가 갔을 때는 하나도 什器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寫眞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 文匣이며 鏡臺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방석 등반의자 또 여기에 소위 鮑石亭이라는 잉어를 키우고 물이 가득히 있는데 이것 다 치우고 또 물도 뺐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價値觀이 顛倒된 사람들이야!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李順子씨가 이것을 使用했구나 하는 것이 一目瞭然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꼭 旅館房 많은 사람들을 收容하는 合宿所같이 다 치워놓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었어! 이와같이 말하자면 公務를 違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公共機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良心의 흔적을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중에 과연 이번 光州에서 內務局長 會計課長 用度係長 이 몇 사람들이 任意로 이것을 치우고 또 갖다놓고 또 倉庫에 갖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內務部長官께서 지난 88年3月25日에 地方靑瓦臺 말하자면 公館의 大統領專用室管理指針을 내려보냈어요.

거기 보면 1項에는 盧泰愚大統領께서 開放化時代 보통사람의 時代 이래서 貴賓室 정도는 公開해서 쓰자... 2項은 大統領專用室에 대해서는 非公開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3項에는 이러한 專用室을 쓰려고 할 때에는 警護室의 協調 指示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라 말하자면 사용은 물론이고 모든 什器 裝身具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靑瓦臺 內務部의 責任있는 분의 指示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느 公務員이 제 마음대로 이것을 청소한다고 車로 옮기고... 이것을 무슨 우리가 觀光旅行가서 자러간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現場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이 時代に 우리가 어떠한 非理와 不正을 척결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한번 다짐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오로 가는 調査團에 대해서 지금 長官께서는 備品臺帳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備品臺帳을 偽造했었어요. 備品臺帳을 보면 이 備品에 대해서는 그런 部分에 이찬주作品... 作品이름이죠. 이 山水畫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臺帳에는 그대로 그림이름 크기가 이런 것이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正門倉庫에 있다 이것은 근래에 쓴 거예요. 지금 文知事가 지난번 2次調査團이 갔을 때 쓴 內容... 陳述書를 보면 理髮臺나 按摩臺 이런 것을 옮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런 것을 다른 곳으로 치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여기에 屏風 3點과 다른 여타 것은 倉庫에 두었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명하게 指示公文을 어기고 公務員들이 제 任意로 한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신들 나와서 아무렇게나 對答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輿野 할 것 없이 5共特委 委員들은 대단한 각오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使命感으로 여기 임하고 있는 것이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吳弘根部長에 대해서 「테러」를 했다 이래서 新聞에 크게 나옵니다 마는 이것은 그 이상이야! 그 사람은 비록 生命에 대해서 傷害를 받았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國民을 속이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長官께서는 분명히 이 事件에 대해서 國民들이 처음에 이렇게 國會의 5共非理特委가 國監·調法에 의해서 調査를 하는데 여기에 감히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도 罰을 안받느냐 이렇게 놀라고 있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法을 遵守하지 않고 말은 새 時代... 요전에 盧泰愚大統領도 金總裁하고의 會談後에 그랬답니다. 성실하게 調査에 최선을 다 하겠다... 말로만 이래선 안돼! 밀의 公務員들이 그것을 정말로 뒷받침 해주고 그런 誠意와 그런 行動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가벼운 마음과 얼굴로서 責任을 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무슨 責任을 지겠다는 사람이 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가벼운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지금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長官이 분명히 여러 가지 備品에 대해 제 마음대로 位置變更을 시키고 또 호 화롭지 않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단 이러한

隱蔽에 대해서 진실로 앞으로 우리가 公務員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분명한 自己自身的 決意와 引責의 發言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知事가 될 잘못했습니다 前과 後가 미진하고 部分的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안돼! 이 자리에 나온 이상은 道知事를 引責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이 나와야 돼! 그래서 道知事에 대한 어떠한 措置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答辯해 주기를 바라면서 本人의 質疑를 끝마칩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盧武鉉委員 質疑하세요.

○盧武鉉委員 統一民主黨 盧武鉉委員입니다.

國會議員 하기도 힘이 들지만 內務部長官 하기도 매우 힘이 들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오늘의 質疑 答辯의 政治的 意味에 관해서 지난번부터 이 特委가 運營될 때 野黨이 非理調查特委의 運營을 政治的 攻勢의 場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與黨委員님들의 非難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이 質疑와 答辯에 관한 見解를 잠시 밝히면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國會는 단순히 警察이나 檢察 또는 法院과 같은 搜查機關 또는 司法機關이 아닙니다. 적어도國會에서 어떤 事件을 調查한다고 하는 것은 國民的 關心事로 되어 있는 큰 政治的 문제에 관해서 警察 또는 檢察이 搜查하기 어려운 政治的 性格을 가진 것에 한해서 調查할 價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國會로서는 어떤 事件을 調查한다 할지라도 그 調查行爲 자체가 벌써 政治行爲입니다.

따라서 調查와 더불어서 사실을 밝혀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밝혀지는 事實이 가지는 政治的 意味를 분명히 밝혀나가고 그에 따라서 政治的 責任을 추궁해가는 것이 必然的으로 隨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분히 政治的 性格을 띠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의 論難의 문제는 그저 政治的 意味의 攻勢라 할지라도 그 主題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는 오히려 다른 입장에서 저는 政治的 意味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答辯을 하실 長官님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本委員이 質問을 할 때 보면 全部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여러 委員의 質問에 答을 하다 보면 質問했던 사람이 들을 때 質問했던 내용을 다 듣지 못하고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本委員의 質問에 대해서는 따로 本委員이 質問한 데에 대한 答辯이라는 것을 明示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答辯하시기 좋도록 한條目 한條目 要約해서 質問을 드릴테니까 한條目 한條目 번호를 摘示하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要求하는 質問의 趣旨는 內務部長官은 그저 事件의 經緯에 관해서 坦坦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一定한 政治的 觀點없이 客觀的 事實만을 部下나 또는 下級機關이 報告하는 대로 陳述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서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調查對象의 事實은 質問對象의 事實은 公務員이 內務部長官 또는 그 部下公務員이든 어느 公務員이 國會의 調查活動을 妨害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質疑 答辯의 目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結論이 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特委가 特委로서 제대로 機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國民의 審判對象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特委뿐만이 아니고 앞으로國會 本會議에서도 있을 수 있는 國政監査 또는 調查活動이 제대로 되어서國會가 제 機能을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하는 것을 審判하는 하나의 試驗臺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國民的 關心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答辯 內容에 의하면 客觀的 事實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具體的으로 누가 어떤 意圖로 어떤 行動을 했으며 그 責任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데에 관해서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마 報告를 들은 많은 분들이 같은 坦坦한 심정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제 質問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調查가 未洽하거나 또는 不誠實한

調査라고 밖에 볼 수 없는 諸問題點을 지적 하면서 아울러 質問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質問중에 1番 按摩臺에 關係해서 작은 1番 10日08時 知事가 안마대를 어떻게 할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解釋되느냐에 따라서 故意로 뭔가를 隱蔽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가 가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答辯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어떤 動機로 안마대를 어떻게 할까 라고 말했는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意圖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2番 物件을 移動하는 것은 어떤 目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만 公館 内部에 物件을 保管할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왜 그 멀리 있는 振興院 그리고 他部署에 所管해 있는 곳까지 物件을 移動하였는지 그 理由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안마대를 옮겼다가 되돌려 놓으면서 경호원 방에 갖다 놨다고 하는데 경호원방 이외의 보관할만한 마땅한 공간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金 炫委員이 調査報告한 바에 의하면 마치 다른 친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슷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불이나 보자기로 잘 싸가지고 보관해 두었다는 그런 報告를 本 委員會가 받았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은 知事가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한 것이나 第2次 國會調査에 報告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은 일체 指摘하지 않습니다. 最終的인 報告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만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質問으로 들어갑니다.

2번은 TV에 關係해서 質問하겠습니다. 2번 중 작은 1번 質問 8月10日 오찬후에 知事가 TV「세트」를 빈방으로 치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指示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작은 2번 그때의 빈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3번 빈방으로 옮기라고 指示를 했는데 멀리 振興廳까지 옮겨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4번 知事は 振興廳으로 물건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TV「세트」를 가 있다는 사실을 報告받고 公館으로 다시 옮기라고 指示했는데 그때 公館이라는 것은 당초 빈방으로 치우라는 指示와 종합해서 들으면 결국 公館으로 옮기되 다른 빈방에 넣어두라는 뜻의 指示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빈방에 두지않고 원 위치에 돌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3번 質問을 하겠습니다. 옮긴 시간에 關係하여 신문보도와 報告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어느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知事가 그 公館에 체재하고 있을때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內務部長官이 調査를 할 때에는 이 점에 關係해서 목격자를 불러 調査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調査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結論이 났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報告 내용중에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質問입니다.

다음 두번째 質問으로 國會調査에 대비하여서 內務部 기타 關係機關은 어떤 事前指示와 報告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해 묻습니다.

國會調査에 대비해서 內務部는 道知事에게 어떤 指示를 은폐의 指示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비한 一般事項으로서 어떠한 指示를 했고 어떠한 報告를 징수하였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작은 1번 質問입니다.

그 다음 작은 2번 質問으로서 大統領警護室과 內務部 그리고 道知事 사이에 있었던 指示와 報告 징수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 質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委員님들도 指摘을 하셨습니다마는 質問의 의미를 다시 섬기 위해서 反復質問을 합니다.

이 件 行爲結果에 대해서 어떤 結論을 내렸으며 關係者에 대해서는 어떤 措置를 할 생각이신지 묻습니다. 특히 道知事의 경우

에당초 指示에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결과가 문제가 되고 虛偽報告가 있었다면…… 그 事後에 國會特委와 內務部長官에게 각기 두번의 虛偽報告를 하였습니다. 이 虛偽報告는 명백하게 公務員으로서의 違法行爲입니다.

그 다음 첫번째 虛偽報告의 내용은 단순한 虛偽報告에 그치지 아니하고 下級公務員에게 그의 責任을 전가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이것은 上級公務員으로서의 品位와 資質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고의가 있는 부분 또는 虛偽報告 責任轉嫁의 문제 資質 등에 관한 長官의 결론과 이후 處分에 관한 計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가서 長官 스스로의 去就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報告받은 바에 의하면 長官은 직접 不法行爲를 指示하거나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行政官廳의 責任者로서는 일정한 政治的 責任이 있습니다. 그 政治的 責任이 제대로 물어질 때 民主政治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民主政治는 責任政治이다. 이렇게 말 하기도 합니다. 責任政治가 一般的으로 발달한 民主主義國家에서 國會의 權限行使를 방해하는 下級機關의 이와같은 行爲가 있었을 때 一般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政治的 責任을 묻는 것이 民主社會의 通例입니까? 例를 잘 모른다면 長官의 見解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번째 質問중의 1번 質問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 質問중의 두번째 質問 長官은 報告의 序頭에서 일부 舊態依然한 思考에 젖은 公務員의 작태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報告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質問하겠습니다.

작은 1번 質問으로서 이와같은 舊態依然한 公務員의 思考 또는 작태가 있다면 이것은 第5共和國을 일관했던 非民主的 政治 그리고 行政의 잔재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內務部長官의 見解는 어떠신지요?

작은 2번 質問 만일 이것이 第5共和國을 일관한 權威主義的 統治 또는 上命下服 관계만 오로지 존중해온 軍隊式 統治의 잔재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事件에 대해서 스스로 內務部長官으로서의 어떤 責任을 느끼고 있으며

또 第5共和國의 權力의 핵심에 서서 第5共和國 政治秩序를 지금까지 스스로 주도해 왔던 政治人으로서 스스로 責任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長官의 見解를 묻습니다.

작은 3번 그림에도 이 特委에서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앞에서 전제했다시피 많은 問題點을 제기했다시피 國民과 國會議員의 特委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불성실하고 미흡한 것 이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 舊態依然한 思考에 젖은 下級公務員들 長官 이하의 職에 있는 階級에 있는 公務員들만의 잘못된 양 말함으로써 마치 責任을 회피하려는듯한 報告 또는 심하게 나쁘게 보면 部下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조금 紳士답지 못한 答辯이 아니었는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舊態依然한 작태로 보지 않으시는지 見解를 묻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이라면 長官으로서의 資質과 品性을 의심케하는 事由라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지 長官의 견해를 묻습니다.

質問이 너무 가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政治的 問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質問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張慶宇委員 質問하시요.

○張慶宇委員 民主正義黨所屬 張慶宇委員입니다.

政派를 떠나서 한 議員의 신분 또 나아가서는 우리 國會調查特別委員會 委員으로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日某日刊紙에 報道된 事件에 의해서 다시 各黨의 代表들이 모여서 第2次 全南 道知事公館의 備品隱蔽事實與否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한 代表의 일원으로서 많은 분노와 함께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眞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長官께서는 지금 全南 道知事公館이 한때 地方靑瓦臺라는 칭호에 의해서 그 豪華性與否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本委員會의 조사의 案件으로 採擇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本委員會가 이번에 다섯군데에 現場調查를 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그 現場에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現場의 相當部分의 물건이 결과가 調査妨害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호화롭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 움직였다 하는 사실은 根本적으로 얘기할 때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李長官께서 報告하신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더라도 우리 調査特委 第2次調査委員會가 8月20日 2日間에 걸쳐서 다녀온 이후에 우리 國會 全體特委에 報告하기를 2日間에 걸친 現場調査結果 特別委員會의 現場調査對象인 全南 道知事 公館內의 貴賓室什器를 國政調査活動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겼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關係人의 陳述에 의하면 道廳 會計課 用度係長이 위의 목적으로 자신의 獨自的 判斷에 의하여 用度係職員 및 公館管理人과 함께 移動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一個 係長이 上部 部署長의 指示나 許可없이 獨自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같이 疑問을 갖는다는 報告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內務部에서는 우리 特委가 끝난 이후 內務部 自體監査를 實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月25日 內務部 監査官의 調査結果에 따라서 責任者 問責案을 가지고 道知事가 서울에 上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報告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8月27日 結果적으로 用度係長과 公館管理者의 罷免이라는 이런 問責案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나 27일에 와서 全南 道知事가 再上京해가지고 長官에게 報告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報告書의 要點이고 要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報告中에 長官께서 答辯하시는 과정에서도 강조하셨고 道知事 裁量으로 任意處分할 수 없는 것이 이 官舍의 備品이라는 重要性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內務長官께서도 貴賓室 및 什器類管理指針移牒通報라는 公文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結果적으로 用度係長 이하 職員의 罷免決定 이후라는 事由때문에 道知事의 虛偽證言이 實體가 證明 糾明되었다고 볼때 우리 特委 委員들의 一般的 見解로서 또 道知事 이상의 어떤 指示나 기타 指示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의 부분이 일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長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客觀的으로 證明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特委 委員會의 많은 委員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質問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방금 盧武鉉委員께서도 또 金奉祚委員께서도 상세한 부분에까지 걸쳐서 많은 質問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에 걸친 道知事의 虛偽證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지금 報告自體도 어디까지나 道知事의 고백에 의한 長官의 報告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內容自體의 眞實性 與否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張本人이시고 또 地方公館의 責任을 지고 있는 道知事의 實質的인 證言이 있어야만 이 答辯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國政監·調査法에 의한 宣誓등 기타 節次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管理責任이 있는 道知事로부터 證言을 듣기를 우리 委員會는 물론 本委員은 듣기를 願하고 또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長官의 見解는 어떠하신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末이 顛倒된 感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委員會가 알고자 하고 이 隱蔽事實與否를 정확히 파헤쳐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節次方法을 擇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本委員의 見解를 말씀드리면서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張慶宇委員의 質問이 끝나면 趙昇衡委員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質疑가 다 끝날 무렵에 一問一答을 要請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要請에 변함이 없습니까?

○趙昇衡委員 예. 간단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內務部長官 答辯해 주세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內務部長官 答辯드리겠습니다.

朴進球委員께서 평소에도 什器를 公館바깥으로 옮긴 前例가 있느냐 있다면 몇 번이나 어떻게 옮겼느냐 하는 이런 質問이 계셨습니다.

公館이 建立된 1983年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서 大統領이 行次時에 什器를 農村振興院으로 옮긴 前例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83年3月8日 大統領 年頭巡視때 한번 옮겼고 84年3月8日에 옮겼고 85年1月31日 86年2月17日 87年2月3日 이것은 전부 다 大統領의 年頭巡視때 什器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87年10月13日은 第68回 全國體典때 大統領이 全南道의 道知事公館專用 施設을 사용하실 때 또 마찬가지로 什器一部를 農村振興院으로 옮겼던 前例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옮겼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 例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음니다마는 그림을 한꺼번에 붙여 놓은 것이 몇장에 불과한데 例를 들면 12點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그때 그때 필요한 그림 붙일 그림만 갖다가 備置를 하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이 방 저 방에 무슨 물건들이 있는 것이 조금 어지러워 보이고 하기 때문에 農村振興院에 갖다가 보관했다가 大統領이 또 이 公館을 비우시면 다시 갖다가 놓고 이렇게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 前例로 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報告한 내용은 知事의 報告外에 再調査를 한 사항인가 그리고 자신있는가 이런 質問이 계셨습니다. 별도로 再調査를 했다가보다 우리 內務部幹部들을 내려보내서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全南知事의 報告事項 이것을 맞춰 보니까 符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眞實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報告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일로 해서 內務公務員들의 명예가 많이 失墜가 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겠느냐 하는 점도 質問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을 痛感하고 정말 地方行政에 종사하는 많은 公務員들의 명예를 失墜되

게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內務公務員 全體가 心機一轉해서 다시는 이런 過誤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國民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國民에게도 정직하고 또 모든 業務를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명예는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短時日內에 이와 같이 해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教育을 강화해 나가고 또 그런 勤務與件을 造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奉祚委員께서 上部指示가 없이 어떻게 備品을 옮길 수 있었느냐 하는 이런 質問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備品을 公館內에서 그 울타리내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은 그 備品을 관리하는 責任公務員의 필요한 權限에 속하고 管理責任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權限을 확대해서 周邊에 있는 農業振興院建物까지 옮겼다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是認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드시피 大統領이 내려 오실 때마다 이 職員들은 그때마다 慣行的으로 農業振興院으로 옮겼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原位置에 갖다 놓았던 이런 前例가 있기 때문에 그런 慣性이 하나의 이런 잘못을 瞬間적으로 저지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나 하고 저는 推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備品臺帳이 變造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現地에 내려가서 조사를 한 責任있는 幹部도 명백하게 저에게 그와 같이 報告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道知事도 備品臺帳을 變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을 參考삼아 말씀드릴 것은 備品臺帳에 그 備品이 있는 위치 어디에 지금 현재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필로 적혀 나가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오늘 寢室에 걸려 있었는데 내일 이것을 옮겨서 창고에 갖다 놓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 公務員들이 철저하게 行政을 하는 公務員이라고 하게 되면 연필로 썼던 것을 寢室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다시 창고라고 위치를 訂正을 해 놓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專用「에어리어」나 또는 그 公館내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備品自體가 A라고 하는 物品이 있었는데 B로 바뀌치기가 됐다든가 또는 臺帳에 A라는 品目이 B로 記載되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은 명백하게 變造概念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있는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바꾼 것은 그것은 備品臺帳에 變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知事를 어떻게 引責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知事引責問題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報告말씀에도 드렸읍니다마는 知事が 어느 정도 위치를 변경하라 하는 指示性的인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調査官이 現地에 가셨을 때 진실을 털어 놓지 않았고 또 內務本部에서 확인을 했을 때도 진실을 털어 놓지 않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그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제 獨自的인 판단 제 혼자서 판단만으로써 내리기보다는 우리 內務部の 知事に 관한 문제는 委員會를 召集해서 가장 합당한 이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方案을 衆論을 모아서 合理的으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倉庫委員 長官! 本委員의 質疑에 答辯하고 다른 委員質疑의 答辯으로 넘어간 것같은데 備品臺帳에 보면 作家 이창수씨가 처음에 山水畫를 그릴 때 倉庫에 備置해 주십사 또 倉庫에 처음부터 備置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臺帳項目에 보면 김명제씨 作品의 등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VIP室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림 폭들이 있는 위치를 變造를 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調査團이 오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위치는 확인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臺帳에 그냥 近間에 쓴 글이예요 그래서 원래 臺帳에 쓴 글씨하고 近間에 쓴 글씨가 體가 달라요.

그래서 長官이 지금도 정신 안차리고 합부로 答辯하는데 그 지금 臺帳이 變造가 되었

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深刻性을 長官이 책임을 못쓰는데 지금 知事를 어떻게 할 것인가 委員會를 열어서 어떤다는데 최소한도 長官本人이 내가 정말로 이것은 國民들이 감쪽놀랄 일로 내가 참 잘못 했습니다 엄청난 不正과 非理의 아픔을 우리가 清算하고 國民的合意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이 엄청난 5共非理에 여러가지 잘못이 있는 것을 통감하고 本人이 물러나야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당연한 얘기지마는 知事에 대해서 어떻게 問責하겠다는 것은... 여보! 國民에 대한 어떤 자기반성과 뉘우침 內務公務員들이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백 마디보다도 長官이 知事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가서 委員會에서 의논을 하든지 하고 최소한도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한번 더 答辯바랍니다.

○內務部長官 李壽九 備品臺帳에 관한 말씀은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침실에 걸려있을 때는 거기다가 침실이라고 記載를 하고 그것을 어떤 동계에서든 倉庫로 옮겼으면 현위치가 倉庫라고 記載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行政을 하는 사람들이 徹頭徹尾하게 했다면 거기있는 모든 備品을 그와같이 徹頭徹尾하게 했겠습니까마는 그 備品管理가 그렇게 엄격하게 行政이 치밀하게 되지않은 것으로 봐서 어떤 것은 제대로 記載가 됐고 어떤 것은 제대로 記載가 되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關係官에 대한 引責問題는 물론 저 자신이 이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報告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 더 合理的인 방법을 택하고 또 委員會에서 확실한 아직 深思熟考하지 못한 이런 결론을 먼저 報告드린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드시 이 사태와 이 事件의 본질에 결코 잘못 되지않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衆智를 모아서 應分の責任을 묻겠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盧武鉉委員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이 按摩臺를 어떻게 할까 하고 知事が 애

기 했을 때 그 眞意와 動機가 무엇이였겠는가 하는 質問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按摩臺는 85年度에 이미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놓으라고 警護員들이 얘기했던 物體들이 이제까지 그냥 多用途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知事는 보기에 좋지않고 하나까 어디로 옮겨놓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振興院까지 옮긴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은 知事의 그와 같은 公館「바운더리」內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備品管理 責任者로 있던 用度係長이 확대해석을 해서 그리고 번번이 大統領이 그 자리에 오실 때마다 農村振興院으로 옮겼던 前例에 따라서 치워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警護員房 이외에 보관 할 곳이 없어서 거기다 갖다 놓았느냐 이렇게 質問을 하셨습니다. 물론 倉庫같은 데 갖다봐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발의자와 함께 치우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로 옮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잠시 그 부분 答辯 다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振興院까지 옮겼던 것은 과거의 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다면 知事가 그 물건을 全般的으로 公館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라 꼭 按摩臺뿐만 아니고 全體報告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건이 없어진 것을 知事가 발견하고 물은 죽순 振興院에 갖다 놨다더라 그러면 公館으로 되돌려 놓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거의 타성이었다면 知事가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는 것도 알른 납득이 안가고 答辯할 때 과거에 그렇게 해 왔었읍니다라고 答辯하지 않은 것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돌려 놓으려면 원 위치로 돌려 놓든지 창고에 돌려 놓지 하필이면 警護員 방에 갖다 놓았는가 그 점에 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아까 제가 덧붙인 부분이 있지요. 특별하게 잘 감싸서 저 구석에 갖다 놓았다는 것을 金 炫委員이 나중에 補充해서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內務部長官 李春九 質問內容이 납득이 갑니다.

아마 그런 物體이 많은 것 보다는 적게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 옮겼겠지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 점에 관해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長官도 이유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合理的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長官의 설명이 合理的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備品臺帳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物體의 위치가 창고에 있던 어디에 있던 實質의인 어떤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盧武鉉委員 그 얘기는 振興院으로 옮긴 것이 과거의 타성에 의한 것이라면 知事가 굳이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말했다는 것도 常識의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되돌려 놓을 때에는 하필이면 왜 이 위치였는가 그것도 또 적게 보이려고 했다고 長官이 금방 시인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長官이 명쾌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미흡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委員會에 報告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조사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委員會를 열어서 적절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틀려지거든요.

故意與否같은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 報告書에는 故意與否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引責措置를 한다는 것은 혹시 잘못하면 知事 本人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더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故意性 與否를 분명히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委員들 당신들이 좀 참고 넘어가라 하는 것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것은 어디까지나 主觀的인 문제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自白하지 않는 한 客觀的으로 그것을 입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언제든 모든 것은 自白에 의해서만 조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內務行政의 總帥가 그런 答辯을 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부인하는 것을 客觀的 사실과 諸般情況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國會에 報告하든지 또는 引責의 資料로 삼든지 하는 것이 當당한 行政의 원칙이지 本人이 自白 안할 것 같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밖에 조사를 못 하겠고 더 이상은 밝힐 방법이 없다거나 또는 그 정도 報告로 만족하라는 것은 國會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多用途에서 다른 데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지시를 벌써 과거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物件이 많은 것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 옮겨 놓았는데 역시 警護員들이 치우라고 했으니까 警護員들이 있던 방 근처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長官이 그렇게 말씀하신면 계속 論爭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옮기라는 지시는 長官이 완벽하게 虛偽報告를 했다고 하는 그 文書에만 과거 88年2월에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지 과거에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달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報告書에는 안 나와 있을지라도 과거에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公務員들이 그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마침 이 때에 와서 지적을 받아 옮겼다고 한다면 그 또한 남득이 가지 않는 것이 다른 場所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 곳은 그야말로 매우 신성한 곳으로 받아들여지던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쓸모 없는 物件이라고 해서 理髮臺는 벌써 치워놓고 按摩臺만 그대로 오래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것이 常識的으로 저는 남득이 가지 않습

니다.

長官은 그것이 남득이 겁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備品の 管理公務員들이 철저히 管理를 하고 그때그때 지시를 이행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職務怠慢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짐작으로 사람을 行政的으로 懲戒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무언가 物件이 적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 않겠느냐 하는 長官의 견해는 個人的 추측입니까 아니면 어떤 調査結果에 의한 판단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調査結果에 의해서 그와 같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추정? 소위 行政的으로 法律上의 의미 있는 판단이지요? 하나의 판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個人的 짐작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調査結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판단 결과를 報告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行政的인 판단이나 公務員로서의 公的인 판단이나 아니면 그냥 私的인 추측이나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여기서 私的인 추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盧武鉉委員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答辯해 주십시오.

○內務部長官 李春九 다음은 TV「세트」와 관련하여 質問이 네 個 계셨습니다.

빈 방으로 치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知事로부터 명백하게 陳述을 들은 것은 그 TV「세트」가 세 個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순간적으로 옆방으로 치우라고 했다고 報告를 받았습니다. 빈 방은 具體的으로 어디를 얘기하느냐... 아마 知事도 명백하게 지칭을 하지 않고 適當한 公館內의 빈방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振興廳으로 옮긴 이유는 뭐냐 이것은 아까 按摩臺와 동일한 내용으로 答辯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公館으로 다시 올 때 유독 이 TV「세트」는 原位置시킨 이유는 뭐냐 寢室에 TV「세트」를 빼놓으니까

의외로 너무 허전해 보이더라 그래서 원위치 시켰다는 것이 知事의 말입니다.

○盧武鉉委員 보충해서 하나 더 물겠습니다. 아까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과거의 情性和 慣行에 의해서 振興院으로 옮겨 놓았던 物件을 왜 이번에는 公館으로 다시 옮기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것은 知事が 판단할 때 과거에는 大統領이 오시니까 걸리적거리는 物件을 거기까지 내가서 좀 單純化시키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번은 國會의 調査團이기 때문에 이 公館 「바운다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公館內로 들여오도록 이와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하나 더 추가해서 물겠습니다. 호화스러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호화스럽지 않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을 部分的으로 숨기려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당시에 知事は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다음 答辯해 주십시오.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다음에 備品들은 옮긴 時間이 報告와 新聞報道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명과 調査를 한 결과는 무엇이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벽 5時頃に 옮겼다는 提報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또 일부 報道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目擊者를 탐문해 보았으나 그 옮기는 作業에 참여했던 사람 이외에는 다른 目擊者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作業에 참여했던 모든 대부분의 要員들의 陳述을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일치하게 아까 報告드린 그 時間에 옮겨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國會調査에 대비해서 事前에 어떤 지시를 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內務部는 아무 지시도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警護室과 內務部 道間에 어떤 지시가 또는 대화가 오고 갔느냐... 아까 金奉祚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警護室에서 내린 이 專用施設管理指針 이것을 저희 內務部가 이첩해서 시달한 외에 전혀 警護室

이나 內務部나 道間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事前에 調査가 가기 전에 무슨 지시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盧武鉉委員 知事の 報告도 없었습니까? 自發的으로 調査가 옵니다 하는 報告도 없었는지 묻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調査「팀」이 내려오시기 전에 知事が 內務部次官에게 몇 일날 몇 時에 國會의 特委調査팀이 調査次 내려오십니다 하는 報告를 한 것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金奉祚委員 그러면 指示公文 나項 大統領 專用施設 非公開 이렇게 했는데 公開가 되었잖아요? 調査團이 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長官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지시도 없는데 調査團이 갔을 때 안내를 하고 公開를 했어요. 그러면 지시를 어긴 것인지?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문제는 國會의 調査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니 知事が 公開를 해서 調査를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金奉祚委員 國會調査團한테 大統領 專用施設을 公開하려면 指示覺書에 非公開로 되어 있으니 指示公文을 내린 사람에게 公開를 하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물어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식이지... 그것을 答辯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非公開라고 했는데 公開가 된 순간인데 안 물어 보고 知事 자기 마음대로 안내를 하겠느냐... 말을 해도 그럴 듯한 말을 거짓말을 해야지 생판 거짓말을 해요?

○金瑋錫委員 저희 國會 5共特委가 31名이고 現地에 調査 가기로 미리 全體會議에서 決議하고 4黨間의 幹事들이 日程을 짜고 또 言論人들 「카메라 맨」들 수행원들 당초 예정은 버스가 두輛로 내려가기로 작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內務部當局에서는 傘下機關인 道에다가 아무런 지시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靑南臺가 되었든지 日海財團이 되었든지 飛龍齋가 되었든지 墓城이 되었든지 해당되는데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國會議員이 왔을 때는 내가 長官이라면 정중하게 안내를 잘할 것이며 거짓 없이 소상하게 報告를 할 것 그 정도는 常

識的으로 지시를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이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아무 지시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것입니까? 그렇게 國會를 輕視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성실한 것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제 아닙니다. 平常時에는 國會調查團뿐만 아니고 모든 委員님들이 行政機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중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答辯드리라고 강조해오고 있고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內務部에서 무슨 지시를 내린단든지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 잘못생각해서 이상한 일들 같은 것을 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체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金瑋鎬委員 長官께서 全南知事를 아끼려는 심정이나 諫下公務員들을 따뜻하게 커다란 회생없이 보살펴주려고 하는 심정이나 여기 앉아 있는 金瑋鎬 심정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貴下보다도 이 사람 심정이 더 마음이 아파요. 항간에는 李春九長官은 全羅道 「킬러」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全南 公務員들을 아끼고 싶어하는 심정은 마찬가지로 그 말입니다. 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長官한테 質疑를 하고 答辯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國政調查權 次元에서 國會議員이 30餘名이나 내려가고 言論人들이 내려가고 이런 판국에 아무런 지시도 안했다 그저 이리이러한 指揮報告 知事로부터 報告만 받았다… 國民들한테 說得力 있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答辯하는 것입니까? 기탄없이 밝힐 것은 밝히고 이문제는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國民들 여러분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政治的으로 문제를 해결할 무엇인가 강구책을 모색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答辯이 있는 것입니까?

○金事昨委員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요. 왜 속이고 그래요?

○盧武鉉委員 委員長님! 어떻게 할까요? 補充質問을 더드릴까요 金瑋鎬委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內務部長官이 答辯을 하도록 기다릴까요?

○委員長 李蓋澤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金瑋

鎬委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하세요.

○盧武鉉委員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요.

3月25日 字 指針 알고 계시지요? 改善指針 貴賓室 및 什器類 管理 改善指針 알고 계십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예.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指針이 나오기 전에도 管理指針이 이것과는 다른 管理指針이 있었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전에 管理指針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盧武鉉委員 管理指針 寫本을 하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말고 別添증에 두 장을 넘기고 나. 부분이 있습니다. 細部指針에서 貴賓室開放중에 1. 現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가. 나. 있는데 나. 부분 非開放 21個所 되어 있습니다. 儀典上 必須場所로서 現行대로 維持管理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現行대로라면 現行대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指針이 나오기 전의 것을 現行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長官이나 앞에 答辯 도와주시는 분들은 됩니까? 現行대로라면 종전의 指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非開放 부분은 現行대로라고 했으니 現行이 무엇이지요?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內務部行政局長이 答辯 올리겠습니다.

3月25日 저희들이 指示 받기 이전에는 公式的인 指針이 없이 단순히 警護室에서 저희들 內部的으로만 專用施設에 대해서는 公開하지 않도록 하는 指示만 있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 소위 改善指針이라고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와같은 施設…… 엄청난 施設에 대해서 內務部가 직접 管理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市 道知事가 직접 管理했습니다.

○盧武鉉委員 知事가 직접 管理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開放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그렇습니다. 3月25日까지는 일체 開放하지 않았습니다.

○盧武鉉委員 거기에는 아무런 規定도 없이

단순한 指示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指示는 成文化되었던 것은 없었던 말씀입니까? 口頭指示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예.

○盧武鉉委員 한마디겠네요. 일체 門열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까?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귀빈이 오신 때 開放하는 이외에는 일체 開放을 하거나 活用을 하거나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調査對象이 되었던 그 公館은 소위 과거의 指示에 따른 運營을 해야 되는 곳이지요? 이번 調査對象이 貴賓專用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指針에 의해서는 公開되지 않는 곳이지요?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거기에 貴賓專用室이 있고 專用室이 아닌 開放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指針을 쳐다 보면서 얘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指針에 의하면 이번에 調査對象이 되었던 公館이 소위 여기에서 非開放에 해당되느냐 開放에 해당되는냐를 묻습니다.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公館中에서는 開放되는 부분과 開放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非開放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요? 非開放에 의하면 警護室의 指示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열 수 없었던 것이 과거의 指示였지요. 그 과거의 指示는 非開放의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지요?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살아 있는데 國會에서 오면 例外가 되었다라 이런 말씀입니까?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그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警護室에서……

○盧武鉉委員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저희 內務部の 公式 立場입니다.

○盧武鉉委員 事前의 입장입니까 事後의 입장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內務部地方行政局長 李判石 事前 立場입니다.

警護室에서 내려온 指針은 어디까지나 行政 指針입니다. 行政 內部的으로 備品管理에 대한 指針이고 이번 國會特委 調査活動은 國會에서 행하는 公式的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指針에 우선해서 開放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여기에 자꾸 備品이야기를 끼워 넣으시는데 이 부분은…

가. 貴賓室 開放에 관한 改善指針입니다. 什器를 꺼냈다 안꺼냈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소위 그와같은 존엄을 해치는 일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貴賓室 開放에 관해서만 문는데 여기에 國會議員이라 할지라도 調査活動이라 할지라도 발을 들여놓는데 原 指示대로라면 警護室의 承諾없이 일체 門을 열 수 없는 곳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쇠로 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件에 한해서는 國會議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行政局長의 答辯이고 內務部長官은 그 答辯을 그대로 追認하시는 것이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이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場所가 非公開된 場所라 하더라도 非公開라는 概念은 다른 사람이 그 場所를 活用해서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을 禁止하는 것이고 物品 備品管理나 청소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나 또는 國會特委에서 調査를 하기 위해서 그 場所를 가서 보는 것이 이것은 許容이 되는 事項으로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점에 관해서 內務部가 일찌감치 國會에 대해서 거기를 承諾없이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國會의 權威가 있다고 생각하고 國會의 입장을 존경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 國會가 하는 모든 政治的 활동에 관해서 內務部가 같은 原則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事詐委員 非公開部分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質疑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해서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지금 盧大統領께서 大統領選舉過程에서도 對國民約束입니다 5共和國에 있어서의 不正과 非理는 그 聖域이 있을 수

없고 또 治外法權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당신네들이 長官이하 內務部 公務員들이 國民의 公僕으로서 잘 하겠습니까 잘 하겠습니까. 말만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이 보세요! 大統領께서 聖域이 없고 治外法權이 없다 하는 것은 國會 特委調查가 구성이 돼가지고 어디든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성심성의껏 開放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提供하겠단 이 말아니요? 長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말 맞죠?

○內務部長官 李春九 예.

○金奉祚委員 그렇다면 물론 내가 다른 이야기 할 것은 없어! 靑南臺에서 총뿌리 겨냥한 것은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봐요! 그 精神이라면 틀림없이 光州 地方靑瓦臺에 와서 報告를 받고는 非公開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이것은 당연히 國會議員들이 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大統領의 精神 그대로를 받아서 당신네들의 말을 내가 볼 때 이것이것은 치우고 이것 이것은 좀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가 아주 세밀하게 내려갔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公務員들이 자기들 任意로 할 수가 있지 문을 열든지 말든지 부수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열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大統領에 대한 당신네들의 禮儀가 아니지 않소!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大統領이 어디든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는 말을 그러면 불성실한 이야기로 당신들이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非公開되는 大統領專用室에 대해서 당연히 國會 5共非理特委 委員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公開가 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해야 大統領에 대한 이야기를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지 전연 안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별개로 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長官 안그렇소! 별개로 노는 것 아니요! 長官立場에서 생각해 보시오! 大統領은 조사를 열심히 누구든지 하도록 했는데 責任 말은 內務部長官은 거기에 대해서 문따고 들어가면 가는 것이고 아무 지시 안했다 하는 것은 大統領에 대한 이것은……

○李聖浩委員 次官은 지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金奉祚委員 非公開라는 것을 1個 次官이 열어주라 하겠어요 이봐요!

우리가 責任있게 나는 이 순간에 과거 우리가 制憲國會에서 反民特委가 구성이 됐을 때 어찌했습니까?

거기에 그 모든 심판을 하고 日帝下에서 日本에 기생해서 앞잡이가 돼서 많은 재산과 생명을 빼앗은 그 잔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온 당시에 36년동안 피해받은 온 國民의 원성이었습니다. 하 나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의 앞잡이 요사이 같으면 高等係刑事 이상으로 좌우지간 돈도 많이 벌고 致富했던 사람 누구니까?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때 李承晚政權이 서고도 8年동안 못잡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反民特委가 구성되자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그 사람을 옹호해 주는 그러한 類似行爲를 하는 사람이 또 심판을 받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 때부터 反民特委의 모든 骨格 權限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相互冷戰 思潮때문에 사실 흐지부지해진 그러한 우리의 아픔이 있어!

지금 진실로 우리가 歷史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與野가 같이 앉아 있지마는 나는 같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盧大統領에 대한 그러한 입장에 여러분들이 더 서있지 않느냐 나는 말로서만 大統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서 이러한 大統領 專用施設에 대해서 次官이 열어라 닫아라 이렇게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長官이 지시한 내용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지금 저의 이야기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보고 指示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張慶宇委員께서 道知事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道知事의 證言을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張委員께서 長官의 見解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金委員님 答辯에 직접 答辯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심정은 지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道知事가 自進出頭해서 宣誓를 하고 과연 內務部나 上部로부터 指示를 받은 事項이 있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양심껏 밝힐 수 있는 方法도 하나의 上部로부터 指示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責任所在를 분명하게 하는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까 張委員께서 제안하신 데 대한 長官의 見解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事件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關係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이런 質問이 있었습니다.

아까 報告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록 最終的으로 公館 「바운더리」 內部 모든 짐기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道德的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이와같은 思考가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措置는 아까 報告드린 바와같이 이런 모든 사실을 綜合해서 法的으로 規定을 또 參照를 하고 그리고 道義的인 責任까지를 합해서 衆意를 모아서 責任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추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道德的으로 責任질 일 이외에 法律上 責任을 저야 될 일은 없었습니까?

法律上 責任이라는 것은 刑事上 責任과 行政上의 責任을 모두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調查團에게 일부나마 진실을 은폐한 報告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地位系統으로 內務部에 제때 신속하게 사실을 그대로 報告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法과 規定에 의해서 問責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盧武鉉委員 중요하지 않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虛偽報告의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한 法的責任을 인정하시는 모양인데 虛偽報告 이전에 什器類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의 違法的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道德的 責任을 저야 될 道德的 비난을 받을 정도의 일이었는가 아니면 명백하게 法的인 責任을 저야 될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묻

습니다. 그 점에 관한 答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 문제는 앞으로 더 檢討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長官의 생각은 다행히 知事가 바깥으로 公館外로 나가있는 什器를 다시 들여오라고 지시를 해서 公館內에 위치시켰기 때문에 法的으로 直接的인 問責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盧武鉉委員 調査는 다 끝난 것이니까 調査가 끝난 상태에서 結論입니까? 앞으로 調査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이 事件 自體에 대한 調査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事案에 대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法的으로 어떻게 어디에다 적용하고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檢討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이 事件에 관해서 長官의 答辯 하나하나가 一般市民이 듣거나 常識을 가진 사람이 들어서 얼마 만큼 성실하게 듣기느냐 안 듣기느냐에 따라서 長官에 대한 評價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이 문제와 관련된 長官의 政治的인 責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 자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國民들이나 또는 우리 內務公職者들이 저지른 일로 해서 國民과 委員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責任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저 자신 저야 될 責任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盧武鉉委員 저야 될 責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은 것은 責任政治가 발달한 民主國家에서 下級機關에 의해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최초의 행위에서부터 虛偽報告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사태를 포함해서 이와같은 政治的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先例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점에 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責任질 일이 있다면 지켰다는 答辯이 아니고……

○內務部長官 李春九 글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 때의 情況과 狀況 여러 가지에 의해서 左右되기 때문에 端的으로 한 마디로

그것을 先例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 이 事件을 풀어나가면서 責任져야 될 일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에 舊態依然한 公務員의 행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제가 序頭에 報告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이것이 5共和國의 情性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시었습니다마는 비단 어제 오늘에 생긴 情性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公務員들이 日帝 36年을 거치고 또 建國 이래 지금까지 오면서 쌓여진 慣行과 情性들이 아니겠느냐…… 물론 5共和國 시절에 이것이 더 심화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情性이 언제 꼭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共和國 때 저 자신이 政治의 核心에서 政治를 主導했다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지나치게 過大評價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共和國에 參與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5共和國이 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責任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責任轉嫁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같은 情性에 의해서 一部 公務員들 특히 下位公務員들이 農村振興院으로 이와같이 이것을 옮겼다 하는 것이 情性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責任轉嫁問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資質과 品格問題를 論하셨는데 저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 있을 資質이나 品格을 갖추지 못한 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항상 이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 하나만 보충해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앞에서 政治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答辯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長官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長官생각대로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부분에 資質과 品性이 스스로 疑心이 간다면 스스로 물러날텐데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資質과 品性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答辯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答辯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해서 政治적으로 이 정도의 事件이라면 長官은 長官 스스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알맞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알맞는 것이냐 國民에게 公開謝過하는 것이 알맞는 것이냐 물러가는 것이 알맞는 것이냐 하는 등등 具體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答辯해 달라는 취지의 質問이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는 것은 答辯이 될 수가 없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글썩요. 그 문제까지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읍니다. 조금 더 時間餘裕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張慶宇委員께서……

○盧武鉉委員 長官! 성실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머리가 정리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머리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時點에서 長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넘어가시려 합니까? 答辯할 의무가 없습니까 法律上 義務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닙니다. 法律上 義務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長官으로서 下級職員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떻게 나 자신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깐 그것을 어떻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까?

○盧武鉉委員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客觀적으로 國民이 알 수 있는 어떤 客觀的 行動으로 책임을 표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느끼고 넘어가겠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닙니다. 이미 아까 이 자리에 서서 최초 報告드릴 때 國民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委員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謝過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벌써 얘기를 이미 드린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정도의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張慶宇委員께서 上部指示가 없었다는 客觀的인 명백한 證據를 提示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答答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슴을 열어 보여드릴 수가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道知事를 宣誓를 시키고 그리고 良心的인 이런 證言을 시켜서 과연 上部의 指示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하는 것을 證言케 하는 것도 그것을 立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7시에 저녁을 하실 豫定입니다마는 조금 늦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원래 計劃은 議事日程 第1項을 다 마치고 저녁을 했으면 했읍니다마는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補充質疑 委員들이 몇 분 계시고 또 맨 마지막에 孫周恒委員이 質問하신데 대해서도 長官이 答辯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들으면 또 저녁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저녁을 일단하고 그 다음에 續開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會議가 끝이 안납니다.

(「지금 마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빨리 마쳐 지겠습니까? 그러면 됐읍니다. 그러면 金 炫委員 간단히 質疑하시고 그 다음에 金奉旭委員 資料部分에 대해서 質問해 주시고 그 다음에 趙昇衡委員 一問一答해 주시고 나중에 孫周恒委員에 대한 答辯까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 炫委員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內務部長官님 말씀이 知事가 말하기를 빈방이라고 한 것을 밑의 職員이 過大評價해서 그렇게 振興院까지 치렀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 이것은 內務部長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잘 알아서 처리했더니 知事가 일을 저질러 놓아서 長官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質問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大韓民國에 살고 大韓民國 國會議員

으로 제일 처음에 全南知事 公館에 갔읍니다.

그러니까 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라고 하는 처음 調査대에 올려진 全南知事 公館을 아까 內務部長官님이 말씀하시듯이 指示하나 한 바 없다 할 정도로 무관하게 생각하실 정도의 內務部長官님이시라면 그 정도의 끈기있고 참을성있으신 內務部長官님이시라면 자질이 무척 좋으시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 들중의 하나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이유가 저희들이 첫번째 國政調査權이 16年만에 發議되어서 처음 내려가는데 자기 산하에 있는 全南道知事 公館을 내려가는데 指示한번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議員資格으로서가 아니라 國民의 한 사람으로 들을 적에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 그래서 아까 知事가 빈방이라고 말한 것을 過大評價해서 그쪽까지 옮겼다 다시 그것은 大統領이 올 때마다 옮기는 情性에 젖어서 그것을 옮기는 버릇이 생겼다고 혹 그럴지도 모른다고 內務部長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번이나 現地에 갔다 온 저로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大統領이 왔을 때 굳이 옮긴다면 그림 정도 바꾸어 놓을까 나머지 物件은 옮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物件들은 꼭 필요한 物件들만 들어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의 道廳에서 會議할 때 쓰는 것은 따로 일체 한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副知事室에도 일체 그전 것이 한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公館뒤의 倉庫에도 公館에서 사용할 때 쓰는 「세트」가 다 일체 따로따로 아주 한벌씩 定해져 있거늘 이것을 굳이 빈방에서 방 세 個에서 옮겨놓을 物件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例를 들어서 按摩臺 理髮臺등 중요한 부분이 옮겨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故意性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物件이 얼마나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情性이라는 말은 한번이 아니요 두번이 아니요 세번이 아니요 서너번이상 해서 버릇이 생겼을 때 情性인데 大統領이 「토탈」 내려온 것이 다섯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報告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섯번인가 여섯번인데……

○內務部長官 李春九 열번입니다.

○**金 炫委員** 大統領이 직접 내려온 게 열 번입니까? 그때 6회로 報告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修正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기억나는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이 變造되었다는 것은 그건 金委員님이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으로 분명히 제가 그 당시 가서 物品臺帳을 가지고 직접 「체크」했던 저로서는 그 면만은 분명히 같은 委員資格으로 해명해 드립니다. 그것이 偽造되지는 않았읍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때 쓰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與野를 떠난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제가 느낀 진심을 얘기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한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內務部長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같은 大韓民國에 같은 大統領을 모시고 있는 各機關의 團體로서 우리가 처음 갔던 全南道知事 公館은 아무 指示없이 道知事 혼자 보여줄 수 있었고 飛龍臺라는 곳은 准將이 나와서 1층은 되어도 2층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한 시간 이상을 거부하면서 저쪽 방으로 가서 上部의 指示를 계속 받으면서 도저히 저로서는 더 이상 어쩔 재주가 없읍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걸 직접 本委員이 귀로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靑南臺에 가서는 훈련된 軍人으로부터 여기는 軍作戰地域입니다 절대 接近 조차 중지입니다 攝影禁止입니다 하는 소리만 반복되면서 충실한 軍人을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같은 大韓民國에 같은 部署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相異하게 틀릴 수가 있는가…… 어디는 特命에 의해서 절대 못보여 주고 2층 이상은 안되고 어디는 문도 못들어 가고 하는데 이 內務部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國民과 직접 관련이 가장 많은 內務部는 大統領이 거쳐야 될 곳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年 8년에 열 번 정도 오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道廳보다 더 큰 坪數를 가지고 호화스럽게 침대 하나가 40萬원이 넘는 이런 것으로 生活을 하면서 그 물건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가 일개 用度係長이 할 수 있다고 知事는 用度係長에게 長官은 知事에게 이런 식이 된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補充質疑를 다시 한번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內務部에서 電話하면 지금 바로 알수 있습니다. 全南知事 전화번호 內務部長官님 次官님 전화번호를 대주셔서…… 분명하게 그걸 확인을 하시려면 저희들이 電話상으로 전화를 걸은 것은 大韓民國이 아주 좋아져서 언젠가 며칠날 몇 시 몇 분에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앞뒤 날짜 열흘 정도를 해서 5日…… 5日해서 通話된 內譯을 지금이라도 횡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電話局에 연락하면 바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奉旭委員** 말씀하세요

○**金奉旭委員** 지금 資料要求한 것을 받았읍니다.

우선 長官도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光州에 가서 現況報告할 적에 이 사람이 누차 이런 資料를 소장하게 보내달라고 그 자리에서 道知事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당시에 狀況報告하기를 道知事が 公館의 改修費와 燃料費만을 계산했기에 이래가지고는 1年の 總維持費를 알수 없으니 거기에 人件費를 합친 維持管理費를 자세히 年度別로 資料로 제출해달라고 한 것을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件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 長官에 그 知事야! 또 한 가지 5,640坪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時價鑑定을 해달라 했는데 예 알았읍니다 알았읍니다 열 번도 더 했는데 전연없어요.

또 한가지 사진을 보니까 年頭巡視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불과 열 번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長官이 答辯하기를 按摩臺라든지 理髮臺같은 집기가 年頭巡視때 여섯번이나 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주고 사온 按摩臺 理髮臺가 불과 한 두 번 쓰기 위해서 몇 年동안 왔다갔다했느냐…… 지금 答辯이 6回 年頭巡視時 집기이동을 했다고 報告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圖面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住宅街에 新築 改補修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土地公概念 公概念하는데 知事公館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집을 못짓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 그 말입니다.

長官의 소신있는 答辯을 해주세요.

○金東周委員 우리가 全南知事公館 現場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 質疑를 안하고 있는 委員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싶어서 本委員이 충고 겸 長官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겠읍니다.

우리 同僚委員들이 상세하게 여러가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李長官은 長官이기 이전에 國會議員입니다. 國民의 代表者입니다. 어떤 政權의 한 長官으로서 만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第5共和國과 第6共和國…… 제가 長官도 아시다시피 內務委員會에 오래 있었는데 그 당시 鄭某長官이 內務長官時節에 용팔이事件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 분명히 內務部長官 傘下에 있는 警察인데도 長官이 모르는 兵力이 出動을 하고 長官은 분명히 잡으라고 하는데도 警察이 안 움직이고 한 事件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어떤 政治的으로 관여하는 他 어떤 操縱機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內務部長官이 소신껏 일을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그 사람도 國會議員이고 그런 사실을 다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內務公務員들은 분명히 李春九 內務部長官의 指示의에는 다른 指示는 절대로 안받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나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次元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볼때 물론 우리 委員들께서 하나하나 물건을 옮긴 부분 또 값의 高下를 막론하고 그 행위자체가 우리가 16年만에 찾은 하나의 國政調査權 참 대단히 숭고한 것입니다. 또 國政調査權을 復活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學生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生命이 죽어갔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李長官이 사랑하는 部下들 또 아까 우리 同僚 金奉旭 委員도 이야기했지만 全南知事같은 사람이 公職에 있을때 자기 나름대로 業績도 있어요. 저도 間接的으로 들었습니다. 하나 지금 현

재 우리 與野가 모처럼 合議가 되어가지고 第5共和國의 非理를 剔決하는 清算하는 第5共和國非理調査特別委員會에서 44個 案件中에서 처음 나가는 國政調査를 이 內務部가 방해했다. 바로 이것이 實定法 違反이다 이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長官이 정말 國會와 國民에게 진심으로 謝過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責任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없고 계속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간다 하는 것은 아무리 李春九長官이 시키지 않았다 指示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國民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상대로 政治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생각할때 물론 理由如何를 막론하고 國政調査를 방해한 채 이 提議에 대해서는 全南知事와 그것도 그 밑의 局長 關係公務員들 다 罷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 第5共和國의 非理가 調査가 되고 剔決이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모든 責任을 지금 盧大統領 第6共和國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長官은 아까 同僚委員들 答辯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長官이 스스로 政治的인 責任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同僚議員이라도 좋고 제가 調査委員으로서 다른 委員들이 좋은 質問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忠告를 드립니다.

答辯 필요없읍니다.

○盧武鉉委員 委員長님! 재 質問하고 答辯한 중에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한 2分만 身上發言兼해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제가 맨 마지막에 長官으로서 資質과 品性을 의심케 하는 事由로 스스로 느끼지 않는가. 이 質問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國會議員이지만 너무 야박한 質問이다 人間的으로 문제있는 사람의 質問이라고 받아들여질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리고 長官이 答辯한 內容을 보면 이 事件에 대해서 나는 責任을 회피한 일이 없다 하는 것으로서 答辯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런 質問을 한 趣旨는 이 事件에 관해서 長官이 아무런 責任이 없다 할지라도 소위 第5共和國의 權力의 體質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前題로 해서 相稱 政治적으로 責任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風土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 具體적으로 이 事件에 있어서 指示를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서 責任을 回避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와 같은 風土를 만들었던 것에 대한 政治人으로서의 責任을 내가 前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볼때 一部 舊態依然한 思考에 젖은 公務員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客觀化시켜서 部下公務員의 地位에 있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차라리 第5共和國을 함께 했던 政治人으로서 政治的 責任을 멋떳하게 먼저 밝히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前題로 한 質問이었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趙昇衛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昇衛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하고 金奉祚委員께서 補充質問을 通해가지고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점을 많이 추궁을 한 것 같습니다.

몇가지 빠진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次官께서 知事에게 무슨 指示를 했다고 하는데 그 指示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長官이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8月9日 午後라고 합니다.

○趙昇衛委員 指示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國會調査團이 처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儀典과 또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세심하게 해라 이렇게 指示를 했습니다.

○趙昇衛委員 그런 內容의 指示를 했다고 次官이 報告를 합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次官에게 報告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趙昇衛委員 직접 듣지 못했어요? 次官 그 령습니까?

○內務部次官 金榮珍 예. 안했습니다.

○趙昇衛委員 1988年3月25日字 內務部長官의 公文입니다. 貴賓室 및 什器類管理改善指針 移牒通報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公關하지 아니하는 施設로서 21個 施設을 지적을 했습니다. 長官 맞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맞습니다.

○趙昇衛委員 그 중에 「호텔」이니 「골프」場이니 高速道路 休憩所니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21個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公館 여섯 個라고 되어 있습니다. 公館 여섯 個 맞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맞습니다.

○趙昇衛委員 公館 여섯 個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全南 全北 道知事公館 慶北 濟州 釜山 그리고 鎮海인데 이것은 軍事施設입니다.

○趙昇衛委員 거기에 靑南臺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趙昇衛委員 분명합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예.

○趙昇衛委員 다음에 이 公文 1項의 方針欄의 “나”項입니다 「大統領 專用으로 별도 施設된 일부 施設은 開放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예.

○趙昇衛委員 또 21個 公館을 비롯한 大統領 專用施設은 儀典上 必須場所로써 現行대로 維持 管理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렇습니다.

○趙昇衛委員 開放되지 아니하는 곳은 물론이고 開放된 貴賓室을 사용할 때라 하더라도 必要時에는 大統領警護室에서 施設主하고 事前 協周해서 使用하도록 이렇게 特別指示가 되어 있는데 그것 틀림없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開放하라고 指示한 그 施設을 貴賓이 다시 使用하려고 할 때는 그때 필요할 때는 施設主는 즉시 使用可能하도록 協調體制를 강구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趙昇衛委員 그러면 아까 開放을 하지 않는 21個 大統領 專用施設이나 公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까 이미 答辯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外部人의 活用 使用은 일체 禁합니다. 그리고 管理責任이 있는 道知事 裁量下에서 그 維持管理를 할 수가 있습니다.

○趙昇衛委員 그 維持管理는 할 수 있고 一般에게는 開放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內務部長官 李春九 道知事 判斷에 의해서 道知事が 判斷해서도 안되는 것은 일체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使用할 수 없습니다. 거기 와서 寄居를 한다든가 거기서 行事を 한다든가 이와 같이 그 施設을 活用하는 것은 안되지만 維持管理 같은 것 이런 것은 道知事が 判斷해서 할 수 있습니다.

○趙昇衡委員 그러니까 아뭏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開放해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開放이라는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趙昇衡委員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포함이 안됩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저희들 知事公館에 있는 專用室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趙昇衡委員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안된다는 것이죠?

○內務部長官 李春九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道知事が 判斷하고 國會調査團같은 이런 調査團이 왔을 때는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우리는 判斷합니다.

○趙昇衡委員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開放貴賓室을 必要時에도 大統領警護室과 事前 協調하도록 되어 있는데 未開放된 곳은 오히려 거꾸로 道知事 마음대로 開放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아니죠. 開放된 곳을 事前 協調體制를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一般人들이 다 쓸 수 있게 開放을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大統領께서 다시 쓰기 위해서 協調를 施設主에게 요청할 때는 短時日內에 금방 使用할 수 있게 이렇게 協調를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趙昇衡委員 그렇다면 이 公文은 필요가 없죠. 開放貴賓室 使用 必要時에는 大統領警護室에서 施設主와 事前 協調해야 한다는 公文은 필요가 없어요. 道知事 마음대로 自己判斷下에 開放하고 開放하지 않으면 되지...

○內務部長官 李春九 開放된 貴賓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마는 高速道路 휴게소 같은 데 있는 施設입니다. 이런 것은...

○趙昇衡委員 그런 물음이 아니고 이미 開放된 貴賓室도 그러는데 하물며 未開放된 곳은 당연히 大統領警護室과 事前에 協調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開放된 施設에 대해서 警護室에서 무슨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秋風嶺에 있는 휴게소에 만일 그런 專用施設 과거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非開放이 됐는데 이번에 開放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施設을 食堂같은 것으로 改造를 해버리면 大統領께서 다시 쓰려는 요청을 했을 때는 그 施設主가 거기에 금방 못 應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一般人이 使用할 수 있도록 開放은 하되 언제든지 靑瓦臺에서 요청을 하면 금방 應할 수 있도록 協調體制를 갖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趙昇衡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公文은 內務部長官이 만든 公文입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이것은 警護室에서 내려온 指針을 그대로 內務部에서는 移牒해서 示達한 부분입니다. 이 公文이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飛龍臺같은 데에서는 軍이 관리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는 해당 軍 쪽으로 내려갔을테고...

○趙昇衡委員 그렇죠. 大統領警護室 保安公文으로 指針이 示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內務部長官은 이것을 隷下機關에 그대로 移牒 通報한 것 아닙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렇습니다.

○趙昇衡委員 그러니까 이 指針은 大統領警護室에서 한 것이지 內務部長官이 마음대로 道知事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그렇지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물론입니다. 指針 자체는 警護室에서 한 것입니다.

○張慶宇委員 委員長!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張委員 말씀하세요.

○張慶宇委員 하도 發言을 안 주실 것 같아서 議事進行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겨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마지막 趙昇衡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부분에 대한 長官의 答辯도 있었습니까마는 本委員은 혹시 잘못 解釋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있었읍니다. 本委員이 이해하기

에도 이 3月25日字 內務部公文에 대해서 상당한 質疑를 벌이고 또 解釋을 하고 答辯을 하고 계신데 本委員 생각에는 內務部에서도 지나친 친절을 하시고 지나친 解釋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題目 자체가 警護室쪽에 什器備品管理의 指針에 관한 移牒通報입니다. 移牒通報고 또 目的欄에 볼 것 같으면 施設主의 불편을 解消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 公文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이 公館에 대한 모든 施設管理의 책임은 道知事에게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議事進行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보기에 長官 나름대로의 성실한 答辯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委員들께서 지금 疑問을 提起하고 있고 더 이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느 부분에 더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평소 존경하는 金東周委員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國會全體가 權威를 가지고 모처럼 調査에 나섰는데 妨害하려는 目的은 아니었느냐 또 關係公務員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紀綱確立에 대한 責任問題도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의 重要性을 보건대 또 本委員의 아까 質疑에 관해서 長官은 뭐라고 答辯을 했느냐 더 이상의 指示나 또 의혹된 부분이 없느냐 했을 적에 長官은 이런 答辯을 했습니다. “차라리 가슴을 열어보일 수 있으면 보이겠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어떤 客觀的인 證憑이 없다 따라서 그나마도 實體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施設主인 바로 責任者인 道知事로부터 또 道知事가 이 모든 자체를 모든 사실을 告白함에 따라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證人採擇方法 등에 의해서 해주셔도 괜찮겠다”라는 長官의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마침 바로 道知事가 이자리에 同席을 하고 있고 또 상당부분 委員님들의 質問에 答辯을 長官께서도 일일이 道知事 또는 全南道廳에 관계하는 公務員들에게 물어서 答辯하고 계시는 것을 보건대 本委員 생각은 바로 우리 國政監·調査法에 瑕疵가

없고 抵觸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道知事 本人이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道知事를 證人으로 採擇을 해서 宣誓를 해가지고 바로 남은 部分의 疑惑問題라든지 우리가 알고 싶은 問題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5共特委가 國民에게 疑惑된 部分을 알려야지 되고 또 그래야지 될 實務가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議事進行兼 緊急動議案으로서 바로 우리 全羅南道道知事를 이 什器 備品隱蔽에 관련된 事件에 관해서 證人으로 採擇해가지고 證言을 들을 것을 緊急動議를 하는 것입니다.

(「再請이오」하는 이 있음)

(「三請이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張委員! 動議를 했습니까?

○張慶宇委員 예, 했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動議가 成立된 상태에서 停會를 한 實例가 있지요. 상당히 좋은 實例였읍니다.

지금 저녁을 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후에 會議를 계속하겠읍니다

20時30분에 續開를 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35分 會議中止)

(22時4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停會하기 전에 張慶宇委員께서 國政監査및 調査에관한法律 第10條 및 國會에서의證言·鑑定 등에관한法律 第5條에 의하면 證人의 出席要求는 出席日 7日前에 議決하고 通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全南知事가 이 會議에 參席하고 있고 또한 本人의 승락이 있다면 오늘 이 會議에서 全南知事가 證人의 資格으로 宣誓하고 答辯 陳述토록 하자는 張慶宇委員의 動議가 停會前에 있었읍니다.

그 動議에 대해서 再請 三請이 있었죠. 그래서 이 動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異議가 있습니까?

혹시 異議가 있으면 討論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昇衡委員 議事日程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을 내고 나서 그

런 動議를 하면 몰라도 그런 變更節次가 없는데 動議案이 成立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重權委員 議事日程에 없는 것이 아니고 議事日程에 있습니다. 別途의 議事日程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第1項에 따라서 調査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議事日程에 있습니다.

○趙昇衡委員 議事日程은 內務部長官出席答辯의 件입니다.

○金重權委員 出席答辯의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全南知事公館什器移動事件에 대한 報告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여러 委員들께서 參考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우리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法律 第7條를 보면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證人 鑑定人の 宣誓…… 위에 이렇게 있고 末尾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參考人으로서 出席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할 것을 승락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서 訊問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全南知事 公館問題 때문에 內務部長官이 오늘 國會에 出席했고 그 參考人으로서 全南知事가 이 자리에 出席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證人으로서도 本人의 意思에 따라서 가능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金瑋鎮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당연히 動議가 成立이 되고 그러면 異議가 있을 때는 異議가 있는 나름대로의 論理를 전개하고 贊反對議를 거쳐가지고 表決에 附하는 것이 順序이겠습니다.마는 反對하는 입장에서는 贊反對論을 時間도 있고 그래서 생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議事進行上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表決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께서 參考로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動議쪽에서는 충분히 아까 動議하시면서 說明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反對하는 쪽에서는 討論을 생략하고 表決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事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長時間 停會를 하면서도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討論도 하고 많이 했

습니다. 그러니까 討論을 생략하고 表決에 들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張慶宇委員의 動議에 대해서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이 動議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委員들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됐습니다.

다음 反對하시는 委員들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在籍委員 28名중에서 贊成 12人 反對 16人 그래서 이 動議가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 內務長官이 우리 저녁식사 전에 質疑하신 委員들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答辯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務部長官 李春九 內務長官 答辯드리겠습니다.

아까 金 炫委員께서 道知事公館의 專用施設과 飛龍臺 靑南臺의 開放이 各各 다른 이유를 質問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公館으로서의 同質性은 있겠지만 道知事公館은 行政豫算으로서 施設管理者가 道知事이고 飛龍臺는 軍事施設로 제가 알고 있고 靑南臺는 管理主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靑南臺問題에 대해서는 얘기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 炫委員 施設主가 道知事예요?

○內務部長官 李春九 그렇지요.

○金 炫委員 그런데 전번에 全南知事는 저희들이 全南知事公館에 내려갔을 때 全部 國費로 施設을 했지 地方費는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하던데……

○內務部長官 李春九 國費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國庫補助지 결과적으로는 그 시설은 地方自治團體 시설입니다.

다음 金奉旭委員께서 人件費를 포함한 公館의 維持管理費를 포함해서 資料를 내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全南知事에게 確認해 본 결과 자료취합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도착되지 않은 資料에 대해서는 知事가 내려가는 즉시 챙겨서 다시 그 報告를 하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業務地區로서 공관주변의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는 아까 1次答辯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內務部所管 業務는 아닙니까. 內務部에서 關係部處와 協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최초로 孫周恒委員께서 저에게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하는 그 책자에 대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議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答辯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이러한 망설임도 있었읍니다. 마치 質問이 계셨고 또 저 나름대로 그 책자를 보는 視角을 말씀드리는 것이 道理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책자를 配布하게 된 경위는 제가 內務部長官으로 就任을 해서 地方巡觀때도 그렇고 各界各層의 人士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저에게 우려를 表하는 것이 이 社會에 만연되고 있는 左傾勢力問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와같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차에 지난 7月14日 全大協에서 8·15南北學生準備會談 報告書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읍니다. 그 문서를 읽어 보니까 공공연하게 暴力革命을 主張을 하고 있는 문서이었읍니다. 그 문서를 읽어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읍니다. 全大協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생대표의 모임에서 公式的인 문서에서 暴力革命을 공공연하게 主張하고 그 방법까지를 提示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던 차에 現代公論 8月號가 나와서 쪽 제목을 훑어 보니까 거기에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하는 아주 색다른 이런 글이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精讀을 해보았읍니다. 이미 많은 委員님께서 그 내용을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參考삼아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간략하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목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 導入部에는 소위 우리 나라의 左傾의 實態와 活動手法를 아주 평이한 문체로 아무나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이와 같이 記述이 되어 있었읍니다.

두번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中間知識層에 대한 안이한 思考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세번째는 우리 社會가 共產主義가 침투하기 아주 좋은 소위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指摘을 하고 그 原因이 歷代政權이 잘못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약한 社會를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指摘을 하고 있었읍니다. 즉 다시 말해서 統治方式의 非民主性 그리고 公務員들의 權威主義意識 官僚主義意識 官便宜意識 이런 것이 指摘이 되고 또한 經濟發展에 치중해서 소외된 階層의 庶民들에게 愛情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愛情으로 보살펴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所得隔差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原因들이 이 社會가 共產勢力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이런 상태로까지 끌고 왔다 하고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政府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말 아픈 곳을 바늘로 찌르는 것같이 신랄한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글이었읍니다.

그 다음에 既成 反共勢力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었읍니다. 歷代政權이 政治的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官製化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權力과 結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國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를 못하는 勢力化되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신랄하게 담겨져 있었읍니다. 이와같은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은 -長官인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內務公務員 전체가 하나의 反省의 資料로 삼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글에서는 결론에 새로운 體制 守護勢力의 필요성을 역설했읍니다. 그 새로운 體制 守護勢力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道德的으로 結합이 없어야 된다 깨닫게야 된다. 두번째 持續的인 改革意志를 가져야 된다. 세번째 自由民主主義體制에 대한 확고한 理論 武裝을 해야 된다. 네번째 自由民主主義體制에 대한 확고한 信條者이어야 된다 때문에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右翼陣營이라고 하더라도 非民主的인 方法 民主的인 아닌 方法으로 目標를 쟁취하려고 하는

勢力과는 과감하게 맞싸워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勢力이어야만이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수호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우리 公務員들이 많이 이것을 보고 반성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左傾勢力을 척결하는데 政府가 나서서도 되지를 않고 더욱이 항간에 요새 떠돌고 있는 것과 같이 올림픽이 끝나면 무슨 뭐가 있을 것이다 軍이 이것을 척결해 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한 말도 안된다 하는 이런 귀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왜 이 글이 極右의 論理가 되어야 되고 極右의 論理로 매도당해야 되는지 저는 疑問입니다. 물론 이 글의 題目이 "이 땅의 右翼은 죽었는가"하는 題目입니다.

이 題目 자체는 저 自身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수호하자는 얘기이고 그 수호하는 方法上的 論理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筆者가 붙인 이름이고 이 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고치려고 하게 되면 저 자신이 이 政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픈 부분 먼저 고치고 싶었던 것이 아마 正常的인 思考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 버리면 노른자위가 다 빠진 것 아무리 어디 배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保守的인 위치에 있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아픈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절그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比較的 各階層과 各部門을 균형되게 다룬 이와 같은 글 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題目과는 달리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守護해야 된다 그것도 自由民主主義的인 방식에 의해서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內務公務員들이 보고 반성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 教育資料로 이것을 배포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孫周恆委員 어떤 돈으로 그것을 했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에. 그것은 豫算으로 했습니다.

○孫周恆委員 무슨 項目豫算으로 했습니까?

○內務部長官 李春九 項目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內務部 幹部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豫算을 활용해서 하라고 제가 指示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項目을 가지고 사용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孫周恆委員 長官님 앉으세요. 夜深하고 제가 두 가지 것만 質疑를 한 사람이니까...

제가 冒頭에서 말씀을린 바와 같이 長官께 質疑를 한 것은 長官의 방금 答辯內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偏見이십니다.

바로 內務行政을 맡고 있는 總帥로서 그러한 思考方式을 지금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용기는 대단히 가상하지만 그 思考方式은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國民들이 이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전전공공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內務行政을 맡고 있는 李長官은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가운데 지금 나는 두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李長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自由民主主義 理論武裝의 教科書로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守護하는 教科書로서 이것을 一考의 價値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複寫를 했다 그것도 政府豫算으로...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既成 反共勢力을 批判하면서도 自由民主主義 信奉으로서 이만한 冊子가 없더라 내용을 修正할래야 할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나라 左翼은 때로는 民主主義勢力을 위장하고 이 나라 左翼은 때로는 民族主義의 勢力을 위장하고 이 나라 左翼은 때로는 良心勢力을 위장하고 지금 이 나라에 침투하고 있다 이 부분하고 이 나라의 左翼은 大學을 완전히 장악 점령했고 勞動社會를 장악했고 文化 藝術 言論 出版 宗教 教育에 침투했고 더욱 각 社會分野에 엄청나게 지금 침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輿野까지 그리고 宗教界는 말할 것도 없고 司法界에까지 완전히 침투하고 있다고 단정을 내렸

읍니다.

이 책을 보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共產化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威脅感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李長官께서 이것을 읽으시고 自由民主主義守護 理論武裝의 教科書로 評價한다고 하니 思考方式이 참 偏見에 치우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本委員은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長官이 內務行政의 總帥로 앉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思考方式이 지금까지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6共和國의 內務行政을 맡고 있는 분은 5共和國과 인연을 끊고 5共和國의 모든 非理를 척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세를 보이는 그러한 원만하고 包容力이 있고 反對도 적극적으로 敵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包容力과 人間性이 넘치는 사람이 內務行政을 맡았어야 한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責下는 內務長官으로서는 適格하지 않다 그리고 그만 뒤야 한다 이런 結論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內務委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만 가지고 集中的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長官께서 당당하게 소신의 전부를 이러한 公關席上에서 말씀하시는 용기는 가상하게 평가하나 이 時點의 이러한 것을 나라의 豫算으로써 더욱이 그 내용이 우리 野團에서 볼 적에는 더욱이 平和民主黨次元에서 볼 적에는 대단히 이것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本委員이 이것은 答辯은 필요없습니다. 알것은 다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朴 實委員 政府 與黨이나 野黨에도 左翼이 많이 침투해 있다고 했는데 內務長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責任限界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 補充만 하겠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豫算措置라든지 節次에 대해서는 다시 또 論議를 할 수 있고 물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하나 전율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서 治安이라든지 對共査察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責任者가 內務部長官이 아닙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機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政府 與黨 各界에 左翼이 정말로 침투해 있는 것인지 長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對處할 것인지 그것을 共感하는 根據라든지 또 그에 대한 政策이라든지 이런 것도 內務部長官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金瑋鎮委員 內務部長官은 同僚議員이면서 國務委員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苦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올시다. 또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守護해야 할 그런 長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지켜줘야 할 그런 입장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國民을 대하기를 뜨거운 愛情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고 國民들로부터는 限없는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 內務部長官이다 저는 먼저 前提를 하면서 政治人은 透視力과 直觀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숲도 불줄 알아야 되고 또 반면에 나무도 불줄을 아셔야 됩니다. 同僚委員들이 지적했던 事項들을 除外하고 두 가지만 재 所見을 말씀드리면서 長官의 所信을 듣고자 합니다.

이 論文의 내용을 보면 昨年度에 있었던 集會는 左傾勢力들이 主導했었던 集會다 이렇게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6·10集會나 6·26集會가 左傾勢力들이 主導했었던 集會였었다 이렇게 決論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民正黨의 盧代表는 6·29宣言을 했습니다. 그 背景은 6·10大會와 6·26大會에서 일어났었던 燎原의 불길처럼 타올랐었던 國民의 뜻에 의해서 당시 盧代表는 承服했었던 것입니다. 또 盧代表는 그 때 분명히 寬勳「클럽」에서 國民의 뜻에 대해서 白旗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梁教授가 지적하시피 87年度의 大會가 左傾勢力들이 主導했었던 그 集會고 그런 모임에서 噴出되었었던 國民의 뜻이 左傾勢力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盧代表는 左傾勢力의 壓力에 의해서 白旗를 들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데에서 長官의 論理를 좀 整理해가지고 答辯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野黨은 與黨으로부터 政權을 奪取하기 위해 左翼과 협력하고 左翼에 협력하기 위해 左翼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論述을 했습니다.

지금 盧大統領은 政局을 主導해 가면서 國民들에게 政府를 신뢰하고 안심한 가운데서 生業에 從事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反共을 우리 다 같은 共同目標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野黨指導者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또 政府 與黨도 우리 野黨하고 統一의 문제 安保의 문제 民生問題 政策的인 次元에서의 見解의 차이는 있을망정 民族의 生存과 統一의 意志와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共同目標를 향해서 출달음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共和黨의 金鍾泌總裁하고도 단 두분이 만나셨고 어제는 우리 民主黨의 金泳三總裁하고 獨坐를 하셨습니다. 내일은 平民黨 金大中總裁하고 만나십니다.

그래 野黨이 左翼과 협력하고 左翼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左翼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現 政權의 總帥인 盧大統領은 左翼을 보호하고 있는 野黨의 黨首들과 만나는 의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論理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左翼의 보호를 받고 左翼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金大中 金泳三 金鍾泌總裁하고도 만나고 있느냐 하는 論理도 成立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記述되고 있는 이 論文을 滿天下 公務員들한테 教科書의 인 立場에서 配布를 했다 이런 速斷을 내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百步를 讓步하더라도 이 두 分野만은 나는 모르겠어요. 左翼이 學園에 침투하고 있는지 또 政府에 司法府에 침투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심정입니다. 솔직한 말씀이... 그렇지만 論理的으로 보아서 이 두 분야만은 아무리 百步讓步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現 政權을 의심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립니다마는 87年度에 있었던 集會들이 제일 큰 集會가 6·10大會이고 6·26

大會입니다. 이것이 左翼이 左傾勢力이 主導하고 있었던 그런 集會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4·13措置를 國民들이 承服 안하면서 우리 大統領 내 손으로 뽑겠다는 그런 熱意로써 불타올랐었던 6·10, 6·26大會였었는데 이것이 左傾이 主導했었던 行事이고 大會이고 集會였다고 그러면 盧代表는 어떻게 해서 이 左傾 左翼이 主導하는 그 뜻을 承服해가지고 白旗를 들고 6·29宣言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左翼을 보호하고 있는 野黨이다 與黨으로부터 政權을 奪取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盧大統領이 지금 野黨黨首들과 만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중예요. 이것은 議題外發言이 아닙니다. 이런 長官의 視角과 哲學과 所信을 가지고 있는 內務部長官이기 때문에 全南知事의 公館問題를 처리하는 등등이 석연치 못하는 말하자면 숲만 보고 나무를 못보는 결과 또 어느 경우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透視力과 直觀力을 가지고 있지 않는 內務行政의 總帥라고 보았을 때 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國民앞에 소상하게 밝혀 주는 것이 長官의 個人立場도 그렇고 國民들이 內務部長官을 신뢰하는 그런 차원에서든 반드시 이 시간에 밝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아까 民正黨의 同僚委員들께서도 議題外發言이라고 그러셨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밝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과거 國會法에 보면 20人 이상의 書面質問만 있으면 答辯하도록 되어 있고 現行 國會法에는 國會議員 한 사람이라도 書面質問하면 答辯할 수 있는 그렇게 法으로써 國會議員의 權威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國民앞에 나오셨으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讓判을 했다 잘못 본 분야도 있었다 이렇게 是認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完全無缺하게 세번 네번 耽讀해 가지고 이것만이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수호하는 決定的인 教科書的인 聖書的인 그런 차원의 論述이라고 보아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配布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를 분명히 國民앞에 밝혀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長官님의 所信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東廷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夜深하고 이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可及的이면 議事進行質問을 議事日程이 3項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 1項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부터 뭐 아까부터입니다마는 1項內容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지금 長官에 대해서 梁東安教授의 글을 배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質疑를 하신 분들이 議事日程 第1項과 관련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계속 強辯을 하고 強調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本人 자신들이 認定을 하듯이 議題外 發言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 是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全體會議에서 조금 전에 바로 第1項 本件과 관련있는 全南道知事 證人採擇 問題를 否決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全南道知事公館備品 移動經緯와 真相報告를 들으면서 이와 何等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質疑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은 議題外 發言인 이 내용에 대해서 長官이 答辯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다음 議事日程 第1項과 관련있는 사항에 관해서 質疑應答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瑛鎭委員 꼭 答辯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金瑛鎭委員 答辯안들어도 좋아요.

○委員長 李基澤 됐습니다. 朴實委員도 質問을 하셨고 金瑛鎭委員께서도 質問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理念論爭인데 代表的으로 孫周恒委員께서 말씀하셔가지고 內務長官이 答辯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曰可曰否하자면 이 論爭은 사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회... 이것은 앞으로 계속 論爭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밤도 夜深하고 하니까 또 金瑛鎭委員께서도 答辯을 안들어도 좋다 참 어떻게 보면 원체 중요한 문제인데다가 이것을 시작을 하자면 아마 여러 委員들이 內務長官을 향해서 공격하고 싶은 委員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옹호하고 싶은 委員들도 계실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論爭은 미안합니다마는 끝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盧武鉉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어떤 경위로 여기서 政治的인 입장 소위 理念에 관한 문제가 論議가 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이 政治的인 입장으로 나타난 이상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基本的으로 갖추어야 될 약간의 균형을 갖추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기록만 봤을 때는 어느 한 쪽의 論理가 옳은 것처럼 간주되고 넘어갈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理念論爭의 문제가 아니고 法律上 問題되는 한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內務長官께서 全大協 報告書를 보니까 暴力革命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具體的인 방법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具體的인 방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데는 저도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대체로 革命的인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라 해도 4·19나 지난 6月の 抗爭의 범주를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自由民主主義體制에 있어서의 抵抗權의 論理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 그 다음 左傾 左翼 또는 共產主義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셨는데 과연 左傾 左翼이라는 概念에는 모두 우리 憲法上 용납되지 않는 것만 들어 있는 것인지 혹은 英國의 勞動黨의 路線이라든지 오랜동안 執權하고 있었던 「스웨덴」社會黨의 路線이라든지 獨逸의 社會民主黨의 路線은 우리 韓國에서 쓰이는 용어로 봐서 그것이 左翼에 속하는가 右翼에 속하는가 만일 左翼에 속한다면 그것은 不法인가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秩序維持를 그리고 法을 집행을 擔當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國民의 自由의 폭이 어느만큼 自由이며 어디까지가 違法인가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데 만일 左翼中에서도 憲法上 合法的인 부분이 있다면 모든 左翼을 罪惡視하는 것이 잘못돼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어느 부분까지가 左翼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져야 되는데 지금까

지 우리 政府에서 사용하고 있는 一般의인 용어는 그 점이 매우 애매모호해서 많은 사람들의 思想의 自由 政治的 自由를 제약할 可能性을 갖고 있는 危險性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 思想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실사 長官이라 할지라도 公務員에 대한 教育은 엄격하게 業務上 行政的인 教育에 국한되어야 하고 理念과 思想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政府施策으로 명백하게 채택된 것으로서 制度的인 教育機關을 통해서 公務員教育院이라든지 이런 機關을 통해서 教育이 되어야지 個人的 信念을 國家豫算을 사용해서 個人的 信念에 속하는 부분을 公務員에게 教育資料로 돌린다는 것은 公務員의 思想의 自由 政治的 自由를 어떤 의미에선 침탈하는 것이고 분명히 權限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政府施策으로서의 선전과 個人的 所信의 선전은 豫算執行에 있어서의 違法性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지적은 해두는 것이 記錄上 균형이 맞추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시간의 누를 끼쳤습니다.

○張慶宇委員 저도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말씀하세요.

○張慶宇委員 本委員도 可及的이면은 여러 委員님들의 방해가 안되고 우리 本 特委의 본래의 목적인 調查活動에 本目的과 실체를 파악하는데에 애를 쓰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本委員이 動議한 案件이 上程되었을 적에도 잘 아시다시피 앞에 계신 同僚野黨委員들께서 다 아는 事項이만큼 討論을 생략하자고까지 提案하셨을 적에도 本委員이 양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짧은 議政生活이지만 本委員도 再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 경험을 보면은 여러가지 案件에 대한 表決하는 경험을 그런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대하시는 委員님들의 이유가 분명했고 또 反對討論하는 討論의 要點가 정정당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바로 이 자리에 本人이 證言을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실체를 알기를 원하는 사항마저도 바로 同僚委員들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반대하시는 이유도 모든 이유를 다 알기때문에 오늘 우리

案件 세개를 처리하는데에 여러가지 지장이 있다고해서 서로 양해하에 바로 討論없이 表決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委員長님께서 계속 議事進行發言 아닌 發言을 자주 주시면서 이 會議가 바로 본래의 목적을 어긋나게 가고 있는데 대해서 本委員은 委員長께 다시한번 우리 議事進行을 원만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님 얘기를 좀 들으세요.

○委員長 李基澤 듣고 있습니다.

○張慶宇委員 議事進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공평한 議事進行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제가 귀하가 마침 두개가 되어서 한쪽귀로 張慶宇委員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든 저런든 지금 內務長官 質疑答辯의 件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서서 수고했습니다. 저는 委員長으로서 오늘 會議進行을 제가 하면서 제가 모든 책임이 있으면서도 제가 느낀 소감의 일단을 밤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長官 오늘 出席하신 것은 사실 우리 本 特委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에 비하면 이것은 돌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돌부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全南知事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5共特委가 이렇게 많은 長時間……

○朴實委員 全南知事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요. 內務長官이 知事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辛再基委員 말이 안돼요.

(「조용히 합시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어쨌든 내 얘기는 全南知事 公館에서 우리가 조사하러 가기 전에 누가 했든지 간에 이 什器를 치우고 온쾌하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 1次的인 책임은 知事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내가 지금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돌부리를 만든 것은 1次的으로 全南知事입니다.

또 그 뒤에 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內務長官입니다.

또 그 이후 우리는 常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大統領이 기거하는 그 장소를 知事나 內務長官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 온 常識으로는 사실 상당한 의혹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혹이 어떻든간에 이것은 우리 5共特委가 지향하고 있는 본연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事件입니다. 이 事件 하나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約 여덟시간 가까이 이렇게 마라톤 會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事件들이 많습니다. 本 委員會에서 어떻게 그 事件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밝혀 낼 것인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오늘 알아서 이거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全南知事 公館問題만 하더라도 內務部長官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을 두서너 차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책임도 통감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道知事は 虛偽證言도 했고 또 什器類 등을 은폐를 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당한 問責을 하겠다고 內務長官이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問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會로서는 당분간은 지켜보고 있고 이 소위 地方齊瓦臺 調査는 오늘로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內務部長官이 사실 內務委員會에 나와 가지고도 答辯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答辯 자세에 대해서 좀 더 委員들이 알고자 하는 핵심을 풀어주지 않고 자꾸만 돌려를 도는듯한 그러한 答辯 자세로 인해서 지금 時間이 굉장히 더 많이 지체된 것이 아닌가?

나는 李春九長官이 같은 우리 同僚議員으로서 國會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뜻에서라기 보다는 5共特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歷史的 使命 이 시대의 使命을 혹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소치에서 오늘과 같은 答辯 자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해

봅니다.

하여튼 이것으로써 內務部長官에 대한 質疑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徐廷華委員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보내 놓고 말씀하시지요.

○徐廷華委員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지금 議事日程 第1項이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오늘 委員長 말씀처럼 여덟 時間동안 이 委員會를 運營하면서 이 委員會運營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張慶宇委員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張慶宇委員이 動議案을 낸것이 否決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少數의 與黨으로서 多數의 힘에 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國民에게 소상하게 眞實 그대로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多數의 힘에 의해서 否決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國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國民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知事が 現 位置에 있고 委員長께서 얘기하신 것 처럼 證言 鑑定法 7條에도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知事が 現 位置에 와 있고 그리고 최후로 知事の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知事の 얘기를 묵살하고 듣지 않고 그대로 動議案이 否決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委員會가 運營되는데 과연 國民들에게 어떻게 실상을 알릴 수 있겠느냐? 지난 번 國會 本會議 때도 證言 鑑定法 통과를 위해서 與野議員 다같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첫번째 문제에서 第1項에서 全南知事が 現 位置에 있기 때문에 國民들에게 소상하게 그 진상을 얘기할 수 있는 最後陳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그대로 묵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本委員會 活動과 더불어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데 과연 이와 같이 해서 國民들에게 이 委員會가 실상을 알리지 못한다면 이 委員會가 과연 國民에게 실망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本委員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委員長에게 建議를 드립니다.

○趙昇衡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말씀하세요.

○趙昇衡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겠어요.

전혀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아무 討論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國民들이 알기는 마치 우리가 무법한 짓을 한 양 與黨委員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全南知事가 여기서 證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현재 이 시각에 全南知事는 證人資格이 없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그의 上官인 內務長官이 이 자리에서 答辯하는 것을 始終一貫이 자리에 同席을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둘째 또 부하가 그 上司 있는 앞에서 그 面前에서 제대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의 知事는 證人資格이 없습니다.

그래서 一般裁判에서는 裁定證人을 裁判長이 안 받아 주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知事는 一般裁判所에서 얘기하는 그 裁定證人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節次를 취해 가지고 證言을 한다면 모르되 적어도 內務部長官이 答辯하는 것을 始終一貫 들었던 사람을 이 자리에서 바로 證人採擇해 가지고 證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한 것입니다.

○李聖濬委員 委員長! 나도 한 마디 합시다. (場內騷亂)

○委員長 李基澤 조용히 해 주세요. 兩側 얘기를 아마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委員長은 表決을 하기가 싫어서 表決하면 결과는 뻔하고 해서 오늘 하루를 넘겨서 내일 午後에 오늘의 會議를 續開하고 그동안 내일 午前에 幹事會議도 하고 우리 與野委員들끼리 만나가지고 意見調整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어서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마는 그것도 사실 안되고 그래서 만 부득이 表決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論爭은 贊成하는 사람도 맞고 反對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論爭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고 아무튼 政府側의 答辯 그리고 우리들의 全羅南道 知事公館內的 什器類 隱蔽에 대한 質問 이 모든 것을 終結한다는 것을 宣布합니다.

2. 調查對象關聯者出國禁止要請回信에 관한件 (23時37分)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第2項 調查對象關聯者出國禁止要請回信에 관한案件을 上程합니다.

第2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제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戊龍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戊龍委員 崔戊龍委員입니다.

當 特委 第3次 會議에서 決議가 되어서 出入國管理法에 의거 法務部長官에게 非理調查關聯者 16人에 대해서 出國禁止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이중 金斗煥 前大統領 및 동부인 李順子에 대해서는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를 고려해서 出國禁止措置는 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通知가 있었던 바 當 特委에서는 法務部長官을 當 特委에 出席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質疑하고 그 答辯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法務部長官의 出席要求를 動議합니다.

다만 出席要求日字는 委員長과 幹事들에게 委任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法務部長官 出席動議案이 되겠습니다.

再請 三請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國會出席日字 이 부분은 委員長과 우리 幹事들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3. 日海財團의 設立背景및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의件(現場調查關聯事項對策)

(23時39分)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第3項 日海財團의 設立背景및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의件 現場調查關聯事項對策을 上程하겠습니다.

지난 第6次 우리 特委의 決議에 의하여 8月24日 日海財團 즉 現 世宗研究所에 대한 現場調查를 실시하여 그 翌日인 8月25日 午

前 5時40分까지 調査活動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委員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日海財團에 대한 現場調査活動에 있어서 委員님들의 質疑와 資料提出要求에 대하여 世宗研究所側은 일부 事案에 대하여는 答辯이나 資料提出을 拒否한 事例가 있었으며 그리고 迎賓館內의 일부 什器類가 當特委의 調査活動을 妨害하기 위하여 隱蔽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疑問點을 갖게 하는 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提起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8月26日 當特委의 幹事會議에서는 이러한 問題點들에 대하여 協議한 바 있습니다. 協議結果 第3次 및 第4次 當特委 全體會議에서 選定한 44個의 調査對象 중 첫째 項目인 日海財團의 設立背景 및 資金造成關聯非理 調査를 오늘 議事日程으로 正式 上程하기로 하였으며 오늘은 지난번 現場調査에서 提起된 問題點들을 중심으로 論議하고 이 事案에 대한 앞으로의 具體的 調査方向에 대하여 여러 委員들의 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事案에 대하여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委員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먼저 지난 8月24日 午後2時부터 8月25日 새벽 6時까지 무릇 16時間동안 우리가 日海財團 現場檢證 즉 現場調査時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與野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積極的으로 협조도 해주셨고 또 다같이 협조를 해주신 결과 우리가 日海財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證據 우리가 調査를 하는데 證據確保도 되었는가 하면 다소간의 證據未確保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本委員이 한 5時間30分 동안의 長時間 質疑 答辯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日海財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總敷地가 20萬6,000坪입니다. 그리고 그 敷地는 분명히 不法的으로 用途變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日海財團의 建築物 構造 부분을 들어가 보면 竣工後에 하루도 사용치 않은 즉 秘密家屋

第1迎賓館 全斗煥씨의 執務室입니다. 第2迎賓館 全斗煥씨 前大統領의 宿所입니다. 垜地 2萬6,000坪 아시다시피 水泳場 「사우나」 「테니스 코트」 監視「카메라」 哨所 2重鐵柵 연못 「골프」연습장 축구장 이런 식으로 많은 시설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總職員이 146名이 勤務하는 研究所가 매월 1,000萬원 이상의 電氣稅를 負擔했다 하는 점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事項입니다.

우리가 日海財團은 지금 현재 全國民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각 言論을 糊塗하고 國民을 속이기 위하여 88年 4月18日 일부 고급 裝飾什器 및 備品을 國產등 일반 市用品으로 交換 配置하여 全斗煥大統領 財團設立者가 실제 사용키로 했던 것은 地下1層과 地下2層 구석에 옮겨 「비닐」등으로 덮어 감추고 言論界 記者들에게 僞裝公開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또 그날 저녁에 財團所長과 그 다음에 事務處長으로부터 是認을 받았 습니다.

특히 88年8月23日 本 第5共和國非理調查特委 委員會에서 與野 合同으로 日海財團을 現場調査를 갔을 때 또 한차례 全大統領의 책상 침대등 특히 李順子씨의 문갑등 高級裝飾品을 地下室에 감추어 두었다가 本委員 및 우리 調査委員에게 발각된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日海財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日海財團基金 寄附者 56名의 金額과 寄附日 字를 명확히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金基桓所長은 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결정에 따라 資料를 提出하겠다고 答辯했습니다. 또 全斗煥씨가 83年11月25日 日海財團 設立出捐金으로 낸 5,000萬원과 84年10月20日 22日 두 차례에 걸쳐 出捐한 寄附金 20億원에 대한 同 手票의 發行銀行 發行日 手票番號에 대해서는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金麟培 事務處長은 이 돈은 84年10月20日 22日 全斗煥 前大統領의 심부름으로서 張世東 당시 警護室長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그 20億원은 3年짜리 長期性預金으로 銀行에 바로 넣고 87年10月 預金證書를 交換했으며 그 銀行은 모르고 處罰을 받더라도 手票番號와 發行銀行을 밝힐 수 없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우리가 무려 16時間 정도의 時間을 시달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金斗煥씨의 문제의 20億원은 87年10月29日 어느 銀行인지는 알 수 없으나 資金의 흐름상으로 볼 때 20億원을 찾아 韓美銀行 營業2部에 開發信託으로 3年間 預置 口座番號는 004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資料는 日海財團側에서 提出한 資料를 깊이 분석해 보면 나타날 確率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月24日 새벽 세시頃 本委員이 지적한 84年12月末 현재 日海財團 寄附金 收入總殘額 185億5,000萬원을 어느 銀行에 預金하였는가 하는 本委員의 質問도 계속 答辯을 하지 않았읍니다. 또 世宗研究所 現況報告 14「페이지」에 보면 流動資金中 預金計定이 되어 있으며 또한 固定資産中에도 長期性 預金計定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基桓所長과 金麟培事務處長은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本委員의 끈질긴 質問에 帳簿 傳票 일체가 있다고 시인했읍니다.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最大企業이고 屈指企業인 現代建設이 日海財團과 不動産을 轉賣하여 一般庶民이 이런 轉賣를 했으면 당장 拘束시키는 6億5,000萬원의 脫稅 부분도 우리가 추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寄附者 56名과 會員 約 1,000名 이상이 納入한 寄附金 및 會員 納入金이 預置된 預金帳 帳簿寫本과 預金銀行을 밝히고 또한 寄附金 및 會員 納入金의 수표번호 및 發行銀行도 밝히라는 本委員의 질문에 日海財團 所長과 事務處長은 처음에는 預金帳簿가 없다고 하다가 우리 委員들이 계속 추궁끝에 處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못내놓는다는 것을 여러번 반복했읍니다.

그 당시에 本委員이 所長에게 問기를 日海財團의 會員이 몇名이나 할때 1,000名以上이 된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日海財團의 1,000名以上 會員名簿와 入會費·會費 등을 年度別·會員別로 납부한 明細書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領收證寫本을 本委員이 받아냈읍니다.

日海財團 金基桓所長과 金麟培事務處長이 入

金된 것을 是認한 87年7月2日 日海財團 會員 入會金 15億원을 낸 익명 1人的 正체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日海財團이 本 特委에 제출한 資料에 의하면 87年7月2日字에 入金된 會員 入會金 15億원이 長期性預金明細書에 기재된 사실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과연 어디에 썼는지 하는 부분도 따져야 되겠읍니다.

또 日海財團이 제출한 資料 日海財團의 事業業績 428「페이지」에 보려는 外部用役 出版物販賣 會費 등은 미포함이라고 明記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익명 要求者 15億원 領收證寫本 「넘버」 20번에 會員 入會金으로 분명히 明記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會費 등은 獨立會計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 獨立會計는 분명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秘資金 즉 政治資金이라고 推定을 하고 있읍니다.

또 45億을 기부한 鄭周永씨는 처음 15億은 자기 自意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지마는 나머지 15億 15億부분에 대해서는 本人의 自意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 하는 疑問性 發言을 했읍니다.

本委員이 그 배경을 살펴볼 때 金斗煥大統領과 警護室長 張世東 막강한 힘을 가진 保安司 現役 陸軍大領 조성희 등이 企業家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제 징수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87年 日海財團이 證券造作波動가지만 해도 약 110億원에 달하는 短期性預金이 현재는 약 38億밖에 되지 않는 具體的인 사유도 밝혀져야 되고 이 點에 대해서도 상당한 疑問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日海財團이 預置한 약 400億원의 長期性 預金通帳의 寫本 預金銀行도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證券造作說과 日海財團이 長期性 預金を 담보로 해서 貸出받은 사실이 있다 하는 說도 있읍니다.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또 83年11月23日 午後 2時 鍾路區 三清洞 145-18番地에서 거행된 假稱 日海財團創立會議錄을 보려는 당시 분명히 現役 保安司 陸軍大領인 조성희씨가 사회를 보고 財團設立趣

旨와 定款案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日海財團 現場調査時 金基桓所長은 조성희씨가 84年7月2일부터 10月2일까지 總務部長으로 歷任한 사실만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제출한 日海財團 參考資料 38「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조성희씨 이름이 다 會議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創立總會 당시 최순달理事長은 主務官廳인 文公部에 事業計劃을 낼때 장학사업만 하기 때문에 1次年度인 84년에 4億8,000萬원

2次年인 85년에는 9億6,000萬원으로 策定하여 事業計劃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83년에는 180億5,000萬원 85년에는 203億5,000萬원이라는 막대한 金額을 조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財團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日海財團이 創立總會때 통과된 日海財團 定款을 보면

第3章 任員 18條에 보면 總裁의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總裁가 全斗煥씨라고 하는 것때문에 문제가 더 된다는 것입니다. 現職 大統領이 日海財團의 出捐者로서 當然職 總裁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만한 큰 非理가 일어났다고 本委員은 분명히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6·29宣言이후 全斗煥씨가 大統領職을 그만 두어야 될 것이 확실해지자 87年8月14日 12時 大韓商工會議所에서 개최된 第8次 臨時理事會에서 任員의 種類와 定數條項에서 總裁를 削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에게 報告를 한 소위 世宗研究所에서 機構 및 人員 2「페이지」에 보면 理事會 그 밑에 바로 所長이 있고 秘書室이 있고 副所長이 있는 지금 현재 機構 및 人員이라는 이 機構表는 第8次 理事會에서 改正된 機構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設立當時인 83年12月1日 日海財團이 設立될 때부터 각종 非理와 利權을 獨占한 87年8月27日 第8次會議까지는 분명히 機構表에 보면 設立者가 總裁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總裁밑에 理事會가 있습니다. 理事長이 있고...

이런 사실등을 명확히 우리는 調査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本委員이 結論을 짓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委員 지금 子正이 다 되

어가니까 次數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發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子正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오늘의 議事日程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會議만 시작되면 늘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上程된 案을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잠시후에 會議次數를 변경해서 오늘 못 다 다룬 事案을 上程해서 會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을 이렇게 갖추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散會로 일단 오늘 會議를 끝마치고 바로 12時가 넘으면 다시 會議를 開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59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澤	金 仁 泳	金 重 權
朴 承 載	朴 進 球	徐 廷 華
辛 再 基	安 秉 珪	李 相 得
李 聖 浩	李 應 善	張 慶 宇
黃 潤 鎭	金 奉 旭	金 瑋 鎭
朴 實	孫 周 恒	李 敬 載
趙 昇 衡	許 萬 基	姜 信 玉
金 東 周	金 奉 祚	金 沄 桓
盧 武 鉉	金 鍾 植	金 炫
鄭 一 永	崔 戊 龍	

○委員아닌出席議員

姜 普 性	金 鎔 采	金 潤 煥
鄭 宗 澤	崔 炯 佑	咸 鍾 漢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朴 柱 一

○出席國務委員

內 務 部 長 官	李 春 九
-----------	-------

○出席政府委員

內 務 部	
次 官	金 榮 珍
次 官 補	朴 成 達
企劃管理室長	李 孝 桂
地方行政局長	李 判 石

○政府側參席者

內 務 部	
監 查 官	朴 重 培
全 羅 南 道	

知 事
内 務 局 長

文 昌 洙
朴 炯 寅